Entertainment p/18

제시카, 소녀시대서 퇴출

metro

메트로 2014년 10월 1일 수요일 제3086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손연재의 '금빛 리듬' 기대

단통법 시행…"꼼꼼히 챙기고 사자"

이용패턴 확인이 먼저
KAIT 홈피 검색 도움
장기 가입자 추가 할인
7만원 이상 변화 없어

'혜택은 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계통신비 절감의 해결사로 기대를 모으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소비자의 머리는 복잡하다. 단통법 세부 고시안 제정 과정에서 '분리공시' 내용이 빠지는 등 반쪽짜리 법안이 되면서 오히려 단말기 가격만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적인 보조금 살포는 사라졌지만 소비자 스스로가 적합한 요금제 등을 선택하는 꼼꼼함이 없으면 통신비 인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장기가입자 할인혜택 적극 활용해야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자신의 통신 이용 패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음성통화, 데이터, 문자 이용 등 자신의 통화 패턴을 꼼꼼히 살피 어떤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홈페이지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특히 KAIT 홈페이지에서 단말기 지원금 수령 여부와 개통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이통사별 지원금 공시 비교도 가능하다.

다만 실지 납부액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 가입자는 단통법 시행 전후 달라질 것이 크게 없을 전망이다. 요금제 구간 상위 30%부터는 이통사가 법정 보조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보조금과 할인혜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7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이용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 30만원에 대리점·판매점이 추가 제공할 수 있는 5%의 지원금을 합해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동사를 이동하지 않고 장기 가입자로 남아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통3사는 장기 가입자에게 추가 할인을 주고 있다. 기기변경을 통해 2년 약정을 새롭게 맺으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장기 가입자 추가할인도 있다.

◆이통3사, 고객 혜택 강화 나서

이통3사가 새로 내놓은 요금제도 상세히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SK텔레콤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맞춤형 요금제를 비롯한 서비스 3종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T멤버십 할인 혜택을 추가하는 등 고객 서비스 강화 계획도 최근 발표했다. 유통망 장려금 정책을 개선하고 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할 방침이다.

KT 역시 ▲새로운 결합 플랫폼인 '올레 패밀리박스' 출시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 주요 광역버스 정규장에 '3배 빠른 기가 와이파이' 구축 ▲와이브로와 LTE를 결합한 와이브로 하이브리드 에그 출시 ▲재휴 할인과 멤버십 혜택 강화 등 정책을 펼쳤다. 이 같은 고객 중심 서비스로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혜택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시행 이후 프로모션 멤버십, 요금제 등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아직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을만한 요금제를 내놓지 않은 만큼 기존 망내외 무제한 요금제처럼 획기적인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초반엔 이용자 차별 현상만 없어져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법이 시행되다보면 이통사·제조사의 고객 혜택도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jy1403@metroseoul.co.kr

오늘은 66주년 국군의날 건군 제66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장병들이 열병 최종 리허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법 협상 극적 타결

7일부터 국감…정부 조직법 연계해 이달 말까지 처리

여야간 진통을 거듭해온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3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마라톤 협상 끝에 여야 합의로 5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두 차례 합의안이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에 의해 거부된 이후 세 번째 나온 합의안으로, 2차 합의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부 조항을 추가했다.

쟁점이던 세월호 특검 추천권과 관련,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되 유족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세월호법과 함께 정부 조직법 개정안과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이달 말까지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정감사는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이 여야 합의 내용을 공식 거부함에 따라 유가족을 설득하는 문제가 여전히 변수로 남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협상 타결 이후 이날 오후 7시 30분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 여당과 함께 계류 법안 및 국정감사 실시의 건 등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5월 2일 이후 151일만이다. /조현정기자 hjc

농자재 대북지원 물품 3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 마련한 인도적 대북지원 물품이 임진강을 건너고 있다. 에이스경암은 비닐·온실 필름·농자재 등 2억원 상당의 대북지원 물품을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에 전달한다. /연합뉴스

"정치권, 국민과 약속 어디로"

박 대통령 "2년간 장외·반목 정치로 어려움… 모든 문제 정략적 접근"

박근혜(사진)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대치를 둘러싼 국회 파행과 관련, "새 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을 정치권의 장외 정치와 반목 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상황일수록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소신과 철학을 갖고 각 부처를 운영해주기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국민은 잊지 않고 있을 것"이라며 "그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가고 (정치권이)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 장기 공전으로 인해 국정 감사 등 모든 일정이 늦어지고 있고 법안도 150일째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고 있어 민생 경제 지원과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 시스템 구축 등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본회의에 계류된 91개 안건 외에도 민생과 직결된 수많은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 전의 과도기 공백과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할 것이고 거시 정책을 비롯해 창조 경제혁신센터를 세우는 등 정부 자체적으로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콜라보' 없으면 노래 못하나

기자 수첩
김지민
<연예스포츠부 기자>

협업을 뜻하는 영어 콜라보레이션, 일명 '콜라보'가 최근 가요 시장에서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 음악 시장에서 두 팀 이상의 뮤지션이 함께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로 피처링 등의 방식이 사용됐다. 최근에는 두 가수가 자신들의 이름을 나란히 내걸고 노래를 발표하는 콜라보를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걸그룹 씨스타 멤버 소유가 솔로로서 남자 가수 정기고와 함께 '소유×정기고'로 올해 상반기에 발표한 노래 '썸'이다. '썸'은 지상파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고 음원 차트에서 오랜 기간 상위권을 유지하는 등 인기를 모았다. 이후 많은 가수들이 다른 가수와 손을 잡는 사례가 늘었다. 최근 소유는 혼성 3인조 그룹 어반자카파의 두 남성 멤버 박용인·권순일과 손잡고 '소유×어반자카파'라는 이름으로 '틈'이란 신곡을 발표했다. 이번 노래 역시 '썸'과 마찬가지로 달콤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가수에게 콜라보는 새로운 도전이다. 자신의 음악색을 내려놓고 다른 가수와의 협업을 통해 다른 장르에 도전하는 신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랑과 이별을 주로 노래하는 대중가요에서 남녀 콜라보는 각 화자의 입장을 대변해 노래하기 좋은 방법이다.

문제는 판에 박힌 복사판 콜라보만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음원 차트에 올라있는 콜라보 노래들은 하나같이 부드러운 템포에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주고받는 듯한 가사로 이뤄진 노래들뿐이다. 몇 개의 성공사례만 따라가며 콜라보의 다른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러브송을 벗어난 개성 넘치는 콜라보가 탄생하길 기대해 본다.

세월호 특별법 극적 타결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오른쪽부터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우윤근 정책위의장. /뉴시스

의원 세비 국민소득 5.6배

선진국 2배 …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돼야"

국회가 5개월이 동안 법안을 단 1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우수한 특권을 누리면서 선진국보다 2배 가량 많은 세비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에서 개최하는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주요 혜택을 공개했다.

권혁철 소장은 먼저 단순 액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주요 국가의 평균 수준이지만 1인당 국민 총생산(GDP)에 대비해 비교하면 우리나라 의원의 세비가 2배 가량 높다고 지적했다.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의원 세비는 1인당 GDP의 2~3배 수준인데 우리나라 의원의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1인당 GDP(2450만원)의 5.6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사무처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의원은 평균 국민소득의 3.59배인 1억9488만원을 받고 영국은 2.89배(1억1619만원), 프랑스는 2.87배(1억2695만원)를 수령한다. 일본 의원의 세비는 5.88배(2억3698만원)로 우리나라보다 많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수준에 맞춘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7000만~8000만원 수준이면 된다는 것이다.

권 소장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국회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일반 국민의 소득 수준에 비해 세비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자기 월급(세비)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의원 세비는 예산의 한 요소로 예산 당국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스스로 세비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현정기자

北 김정은 27일째 '잠행' 쿠데타설까지 나돌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잠행'이 한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갖가지 억측이 나오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의 '잠행'은 지난달 3일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관람 이후 30일까지 27일째 공개 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만큼 오래 두문불출한 것은 집권 이후 처음이다.

이를 둘러싼 억측 가운데 김 제1위원장이 7월 8일 김일성 주석 20주기 중앙추모대회 이후 종종 다리를 심하게 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부분 그의 건강 이상에 관한 것이다.

일본지단체 자유북한방송은 25일 '평양 소식통'을 인용하여 김 제1위원장이 발목 수술을 받고 자택 치료 중이라는 설을 제기했다. 북한 정세에 민감한 국내 증시에서는 김 제1위원장이 뇌에 이상이 생겨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는 근거 없는 소문도 돌았다.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는 조명록 전 북한 군총정치국장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김 제1위원장을 구금했다는 설까지 유포됐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지방선거 선출직 평균 재산 10억8000만원

●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공직자 573명의 평균 재산은 10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573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선거에 새로 당선돼 재산 등록 의무가 발생한 광역자치단체장 11명, 교육감 8명, 기초자치단체장 92명, 광역의회의원 462명이다.

박희태 성추행 혐의 사건 기소의견 송치

●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성추행 혐의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강제 추행)로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 전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정부, 北 아시안게임 선수단 체류비 지원

● 정부는 북한이 원할 경우 인천아시안게임에 참여한 북한 선수단과 대표단의 체류 비용 대부분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북한 선수단이 떠나고 관련 비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나서 남북 협력기금 지원 규모를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좌초 바캉스호 예고된 인재?

세월호보다 7년 더 낡아 주민들 반발 불구 운항 승객 110명은 전원 구조

홍도 해상에서 좌초된 유람선 바캉스호가 1987년 건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 건조된 세월호보다 7년이나 더 낡은 배다. 30일 바캉스호 선박대장에 따르면 이 배는 1987년 7월 1일 일본에서 건조됐다.

면허기간은 지난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0년간이다. 면허기간이 완료되는 2023년에는 선령 37년인 채로 운항하게 되는 셈이다.

바캉스호는 운항 허가 당시 노후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홍도 청년회원 등 주민 70여명은 목포해경에 유람선 허가를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기도 했지만 5월부터 운항에 들어갔다. 이번 사고로 노후 선박 운항 문제가 또다시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남 홍도 청년회장은 "3~4월 허가 들어올 때 탄원서를 냈었다"며 "해사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면 차원에서 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뜻하지 않게 이런 사고가 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14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선착장 200m 앞 선착장에서 바캉스호가 좌초됐으나 30분 만인 9시 42분께 승객은 전원 구조됐다.

이 배에는 관광객 105명, 승무원 5명 등 총 110명이 탑승했다. 이 유람선은 이날 오전 승객을 태우고 홍도항을 출항, 해상 유람 관광에 나섰다가 사고가 났다.

/윤다혜기자 yahi@metroseoul.co.kr

형형색색 국화 9월 마지막 날인 30일 대전 유성구 한 농원에 국화 15만 송이가 만발해 있다. 유성구청은 이 국화꽃을 이용해서 다음달 11일부터 유림공원에서 국화꽃 축제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9시 11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해상에서 유람선 바캉스호가 좌초되자 인근 어선이 현장에서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 유람선에는 관광객 105명, 승무원 5명 등 총 110명이 탑승했으며 모두 구조됐다. /연합뉴스

'아빠 육아휴직' 첫달 최대 150만원

오늘부터 — 근로단축급여 통상임금 60%

1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는 육아휴직 첫 월급을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첫 1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 금액 150만원)로 상향된다. 두 번째 달부터는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을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윤다혜기자

올 국가공무원 8876명 명퇴 '러시'

교육직 4423명 '최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들어 이달까지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8876명이 명예퇴직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직 명예퇴직자가 4423명으로 가장 많고, 일반직과 경찰에서도 각각 2763명과 1663명이 정년에 앞서 공직을 떠났다.

각 기관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명퇴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 러시로 교육부의 명퇴 인원(일반직 포함)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484명이나 됐다.

교육부와 경찰청을 제외하고 일반직 공무원 명퇴가 가장 많은 중앙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우정사업본부 구조조정의 여파로 1094명이 명예퇴직했다. /윤다혜기자

남성 2명 중 1명 성 구매 경험있다

여가부 실태조사… 성매매 집결지 업소·종사 여성 3% 증가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를 근절하려는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2013년 전국 성매매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와 종사 여성의 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전국 성매매 집결지의 성매매 업소 수는 2010년 1806개에서 지난해 1858개로 52개(2.9%)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또 종사 여성 숫자도 4917명에서 5103명으로 186명(3.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사 대상 집결지 숫자 자체는 같은 기간 45곳에서 44곳으로 1곳이 줄었다. 또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인 2002년 조사에 비해서는 집결지 업소, 종사 여성 숫자가 모두 약 36~44% 감소했다.

한편 남성 답변자 가운데 56.7%(680명)가 평생 한 번 이상 성 구매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으며 27.2%(326명)는 최근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윤다혜기자

교과서 채택 변경 어려워진다

"학운위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 얻어야"

일선 학교에서 한번 선정된 검·인정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바꾸는 일이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선정된 검·인정 교과용도서를 변경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 교과 교사의 3배수 추천→학운위의 심의 및 순위 결정→학교장의 최종 선택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검·인정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바꿀 때 학운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찬성을 얻도록 했다.

교과서 선정 번복에 관한 조항은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없고 행정지침인 선정 매뉴얼에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한다'고만 돼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교과서 주문 기한을 학기 개시 6개월 전에서 4개월 전으로 늦추고, 교과서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으로 미룰 수 있게 했다. 또 교과서를 선정할 때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명시했다. /윤다혜기자

ITU 전권회의 기념우표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은 2014 ITU 전권회의 기념우표 4종 102만2000장을 1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우표는 ITU 전권회의 로고, 나라의 위급한 소식을 전하는데 이용된 봉수대, 대문 대신 몇개의 굵은 나무를 가로로 걸쳐놓는 방법으로 의사표시하는 제주 정낭, 개최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광안대교 등을 소재로 디자인했다.

덕성 글로벌 스케치 대회

덕성여대는 최근 학내에서 '제4회 덕성 글로벌 스케치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700여명이 참가했으며 그림 도구를 색연필로 제한해 도구 사용에 따른 오염물 배출을 줄였다. 대회의 심사는 베스트셀러 '먼 나라 이웃나라'의 저자인 이원복 교수 등 일러스트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맡는다.

심사 발표는 6일 대회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홍콩 시위대에 발포?

중화권 매체 "당국이 계획안 보고했지만 시 주석이 무시"

홍콩에서 2017년 중국 주도의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에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홍콩 당국이 시위대에 발포할 계획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은 지난달 30일 소식통을 인용, 홍콩 행정수반인 렁춘잉 행정장관과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시위대에 대한 발포안을 만들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고했으나 시 주석이 이를 무시했다고 전했다.

보쉰에 따르면 이 무력진압 방안 작성에는 홍콩 측에서 렁 장관과 펑웨이슝 경무처 처장, 중국 측에서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겸 정치국 상무위원과 류옌둥 부총리, 홍콩 주재 중국 연락판공실 장샤오밍 주임 등 5명이 관여했다.

이들은 홍콩 경찰에 무력 진압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은 물론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시내 대형 병원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렁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시위대 진압을 위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경찰이 동원될 것이라는 루머는 믿지 말라"고 했다. 이어 "불법적인 행동이 중앙 정부의 결정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홍콩에서는 시민과 학생을 중심으로 반중국 시위가 거세다. 수만 여명의 시위대는 렁 장관의 퇴임을 요구하며 경찰에 맞서고 있다. 시위대가 물대포 등 경찰의 공격을 우산으로 막아내 '우산혁명'으로 불린다. 중국 정부는 이 시위가 제2의 톈안먼 사태로 번질까 전전긍긍 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미국 정부는 홍콩 시위대에 지지를 표했다.

영국의 닉 클레그 부총리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홍콩 거리로 나온 용감한 민주주의 시위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클레그 부총리는 1997년 홍콩의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까지 홍콩을 통치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지난달 30일 현지시간 홍콩 정부청사 인근 거리에서 시위대가 우산을 쓰고 앉아 있다.
/AP·뉴시스

지난달 30일 현지시간 홍콩 정부청사 인근 거리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AP·뉴시스

'거미인간' 52층 건물 정복

metro Russia

2시간 20분만에 188m

프랑스인 '거미인간' 알랭 로베르가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가장 높은 비즈니스 센터에 올라 화제다.

건물에 오르기 전 로베르는 "나를 거미인간으로 부르는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리 건물에서 미끄러지지 않겠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이어 "평평한 유리 건물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진공 발판을 이용한다"고 거미 인간의 비밀을 귀띔했다.

로베르가 52층 높이의 비즈니스 센터에 안전하게 오를 수 있도록 러시아 전문가들도 도왔다.

안전보안팀의 이나 올레블라가다로프는 "20층 높이에 안전발판을 설치했다"며 "30층 지점이 가장 힘든 구간이 될 것이다. 체력이 많이 소진된 데다 바람도 심하게 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보안팀의 걱정과는 달리 막상 도전이 시작되자 로베르는 거침없이 공중을 올라갔다. 출발 후 2시간 20분 만에 188m, 52층 높이의 비즈니스 센터에 기어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로베르는 "반복적으로 신체를 움직이다 보니 등의 다리에 통증이 있었지만 괜찮다"고 했다. 그는 "비즈니스 센터에 오르기 전 24층 높이의 정부청사를 둘러 봤다. 10분만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만 뒀다"며 "러시아 경찰에게 잡혀가긴 싫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나질리야 무하메샤 기자·정리=조선미기자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태국 대학병원 교수 주장

태국 병원이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마히돈 대학 시리라즈 병원 교수진은 "에볼라에 대한 항체 치료제를 개발했다"며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고 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것이 예방 백신인지 바이러스를 죽이는 치료제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서아프리카에 창궐한 에볼라 전염병 사망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태국에서는 지금까지 에볼라 감염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조선미기자

"온타케산 분화 계기 원전가동 안돼"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 脫원전 입장 밝혀

고이즈미 준이치로(사진) 전 일본 총리가 일본 내 원전 재가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도쿄 도내에서 탈원전을 호소하는 록 페스티벌에 참석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온타케산(3067m) 분화를 계기로, 아베 신조 총리의 원전 재가동 정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온타케산 분화와 같은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지진이나 게릴라 분화가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본은 원전을 가동하면 안 되는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가고시마현 센다이 원전을 1차로 재가동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정부는 세계 제일의 안전기준이라고 말하지만 미국, 프랑스 등보다 무엇이 우수한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록 페스티벌에서 고이즈미 전 총리는 자신과 함께 탈원전 운동을 펴는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와 함께 원전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송주원기자 [illegible]

"하루 근무하며 회사와 궁합 살펴봐요"

이국명 기자의 알짜기업 탐방

NHN엔터테인먼트 ㉓

'필 더 토스트' 이색 채용 눈길
아침·점심·저녁·야식 무료 제공
티켓링크·인크루트 인수 사업확대

"서류전형을 통과한 구직자는 직접 회사로 출근해 하루동안 선배들과 함께 업무를 보는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선배들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것은 물론 회사 분위기도 직접 파악할 수 있죠. 지원자를 평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구직자도 회사가 자신과 맞는지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승찬 인사팀장은 올 상반기 도입한 이색 채용제도 '필 더 토스트(Feel the Toast, 토스트는 게임 포털 브랜드)'가 NHN엔터테인먼트의 자랑거리인 '소통문화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일방적으로 회사가 인사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가 회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불합격자에게도 부족한 점을 일일이 알려줘 호평을 받고 있다고 이 팀장은 강조했다.

◆승진직원에게 10일간 휴가 선물

이같은 소통 문화는 다양한 복시제도로도 빛나고 있다. 우선 승진 직원에게는 해당 연도에 10일 내외의 휴가와 함께 휴가비까지 지급하는 '리프레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계 가족까지 병원진료는 물론 수술 치료 약제비를 지원해준다. 특히 끼니때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걱정할 필요도 없다. 사내 식당에서 아침·점심·저녁은 물론 야근자들을 위한 야식 포장마차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레이뮤지엄으로 이름 붙여진 사옥도 자랑거리다. '즐거운 놀이문화를 만드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 사옥은 국제 디자인 공모전인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할 정도로 건축미가 빼어나다. 외관뿐만 아니라 사내 시설도 인근 업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구내식당에는 아케이드 게임기기, 배드민턴·탁구를 즐길 수 있는 플레이 공간, 잠수함 컨셉트의 미팅룸 '옐로우 마린(Yellow Marine)', 카페테리아 등이 마련돼 있다. 엄모실, 샤워실, 남여휴게실, 수유실, 피트니스 센터 등도 있으며 옥상에는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연공 하천과 미니 정원도 가꿔놓았다.

교육프로그램도 웬만한 대기업 못지않다. 무려 9주에 걸쳐 신입교육을 실시한다. 해킹기 등에 가상 위기 상황을 직접 해결하는 교육도 실시해 업무 적응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교육 덕분에 신규 입사 2년여 만에 서비스 기획부터 런칭까지 직업지는 PM(프로젝트 매니저)을 맡는 경우도 종종 있다.

NHN엔터 휴게실에서 직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연봉은 물론 업계 최고 수준이다.

◆10월 5일까지 신입 공채

한국 최초의 온라인 게임 포털 한게임에 뿌리를 둔 NHN엔터는 IT분야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 8월 네이버와 인적분할한 후 보안업체 '피앤피시큐어', 예매 사이트 '티켓링크', 취업포털 '인크루트', 결제대행사(PG) '한국사이버결제', 쇼핑몰솔루션업체 '고도소프트' 등을 인수·투자했다.

NHN엔터는 이같은 사업 확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 5일까지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IT인프라, IT보안 등 기술부문이다. 지원 자격은 2015년 2월 또는 2015년 8월 졸업예정자, 기졸업자다. 채용인원은 30명 내외다. 채용 홈페이지(recruit.nhnent.com)에 접속해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어떤 인재를 원한다

"한 분야에 미친 경험 있다면 OK"

"취미 특기 등 한 분야에 소위 '미쳤던 경험'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이승찬(사진) NHN엔터테인먼트 인사팀장은 몰입경험이 있다면 어떤 일을 맡겨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펙은 보지 않는다는 말인가

▶▶학점, 영어성적 등을 적는 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스펙보다는 원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와 열정을 갖춘 지원자를 선호한다.

▶서류 면접에서 주로 체크하는 것은.

▶▶회사와 직무에 대한 관심이다. 취업난이 극심해서인지 회사에 대한 파악과 직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지원자들이 여전히 많다. 면접에서도 정답보다는 대화가 가능한 지를 체크한다. 실력이 부족해도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합격 노하우는

▶▶자신을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철저히 연습해도 대화를 나눠보면 거짓은 들통 나기 마련이다. 단순히 취업 목적이 아니라 NHN엔터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다는 열정을 드러낸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강소기업-청년 채용박람회 3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4 부산광역권 강소기업-청년 채용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어1위 영단기의 인재양성서비스 '취업단기'가 함께하는 생생한 취업Q&A

가족·친구 인터뷰로 자소서 차별화를

Q 동시에 여러 회사에 제출할 자소서를 쓰다 보니 내용이 다 비슷해지는 거 같아요. 똑같기만 한 제 경험과 이야기,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자기소개서는 단순히 자기 이야기를 쓴다고 해서 잘 쓴 것이 아닙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상황과 비전을 자신의 경험과 함께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나온 기업정보 공개 보고서나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 표현, 문장, 비전을 내가 얼마나 이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주가 돼야 합니다. 즉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 조직의 특징과 문화에 내가 얼마나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경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지원하는 기업이 추구하는 리더십 정의와 연계해야 합니다. 경험에 대해 쓴다면 해당 경험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인재상, 부서의 업무 등에 이르기까지 나의 경험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연결고리를 찾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번을 말해도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인재상을 파악 후 자기소개서에 녹아들 듯 개인의 특성과 연관지어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인재상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혼자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쓰다 보면 어디서 본 듯한 천편일률적인 자소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직자분들한테 한번쯤 보여주는 것입니다. 친구와 가족, 나를 지켜봤던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다 보면 객관적인 시각이 생기고 내가 바라보는 나와 남이 바라보는 나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신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 감춰진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묻고 찾아 내다보면 의외의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나를 찬찬히 돌아보는 과정을 거쳐야 뻔하지 않고 솔직한 자소서가 나오게 됩니다.

/취업단기(www.en.hackers.com)' ○○○ 강사

정리=이국명기자

market index <30일>

코스피	코스닥
2020.09 (-6.51)	573.22 (+3.95)

금리	환율
2.30 (-0.02)	1055.03 (-1.00)

용기째 구워먹는 새우 30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도우미들이 편의성이 나들이에서 용기째 구워 먹을 수 있는 새우 등 간편식 새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보다 유사업종 선호

경력직 채용에서 유사 업종 출신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출신을 선호하는 비율은 예상보다 드물었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헤드헌팅 취업포털 HR파트너스는 30일 국내기업 인사담당자 194명을 대상으로 '경력직 채용 시 선호하는 전 직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사담당자들은 유관 업종 경력사를 대기업 출신보다 선호하고 있었다.

경력직 직원 채용 시 대기업 선호 여부에 대해 인사담당자의 69.1%는 '대기업 출신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동일·유사업계 경력자를 선호한다'는 답변은 82%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동일 업종(28.4%)보다 유사 업종(53.6%)에서 근무한 경력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선호 이유 1위는 '업무 적응이 빠르기 때문'이었다. 이어 '바로 실무 투입이 가능해서', '직무 재교육 비용과 시간 단축' 등이 거론됐다.

한편 대기업 출신을 선호한다고 답한 인사담당자가 뽑은 선호 직장 1위는 삼성그룹(31.7%)이었다. 2위는 포스코그룹(6.7%), 3위는 LG그룹(5.0%)이었다.

/황공희기자 unique@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사직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회 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4~3
독자센터 02)721-9801

고성능·친환경 자동차 대공세

파리모터쇼 2일 개막…BMW 등 신차 눈길

오는 10월 2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개막하는 2014 파리 모터쇼에선 세계 업체들의 신차와 콘셉트카가 대거 출품된다. 파리 모터쇼는 세계 5대 모터쇼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매년 짝수 해에 개최된다. 유럽시장을 공략하는 주요 관문이기 때문에 자동차업계들과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행사다.

이번 모터쇼도 볼거리가 풍성하다. 우선 BMW는 뉴 2시리즈 컨버터블을 공개한다. 1시리즈 컨버터블의 후속 자리를 물려받은 이 차는 시속 50km/h 이하에서 지붕을 20초 내에 열거나 닫을 수 있다. BMW 최초로 내장 SIM 카드를 통해 무선 전송 방식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적용됐다.

이번에 데뷔하는 뉴 X6는 차체길이가 4909mm로 구형보다 32mm 늘어났고, 좌우로 커진 헤드라이트와 키드니 그릴을 적용했다. 분할 접이식 뒷좌석을 통해 기본 580ℓ에서 최대 1525ℓ까지 적재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데, 이는 구형보다 각각 10ℓ와 75ℓ 늘어난 수치다. 다이내믹 어댑티브 서스펜션 패키지와 컴포트 어댑티브 서스펜션 패키지, 또는 프로페셔널 어댑티브 서스펜션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다.

BMW 뉴 2시리즈 컨버터블

푸조 쿼츠(QUARTZ)

액티브 투어러는 뉴 2시리즈 라인업의 두 번째 모델이다. 전장 4342mm, 전폭 1800mm, 전고 1555mm의 사이즈로 콤팩트한 외관에 넓은 실내를 갖췄다. 40:20:40 분할 접이식 뒷좌석 등받이를 적용해 적재 용량을 1510ℓ까지 확장할 수 있다. BMW 최초로 앞바퀴굴림을 채택한 것도 특징. 3기통 또는 4기통 엔진을 탑재한다.

푸조의 콘셉트카 쿼츠(QUARTZ)는 미래지향적 디자인이 특징이다. 1.6ℓ 가솔린 터보 THP 엔진과 2개의 85kW 전기모터가 더해져 최고 500마력의 힘을 발휘하며, ZEV 모드, 로드 모드, 레이스 모드 등 세 가지 모드로 주행할 수 있다.

푸조는 하이브리드 에어 기술이 탑재된 208 하이브리드 에어 2L도 공개한다. 208 하이브리드 에어 2L은 1.2ℓ 퓨어테크 엔진에 하이브리드 에어 기술을 접목해 2리터의 연료로 100km를 달릴 수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6g/km에 불과하다. 또한 알루미늄과 카본 파이버를 사용해 차체 중량을 100kg 감소시켰다.

시트로엥 C4 칵투스 에어플로 2L 콘셉트카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모델로 탄소섬유, 알루미늄, 고강도 철재, 폴리카보네이트 등을 적용해 기존 양산형 C4 칵투스보다 100kg 가량 가볍다. 2리터의 연료로 100km 주행을 구현하기 위해 공기역학성능이 20% 향상됐으며, 연료소비량은 30% 줄였다.

파리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되는 뉴 MINI 5도어는 2개의 뒤 도어가 추가됐고, 뒷좌석에 3인승 시트도 선택할 수 있다. 휠베이스는 3세대 3도어보다 72mm 더 늘어났다. 차체 길이도 161mm 더 길어졌으며 높이는 11mm 높아져 실내 공간이 넉넉해졌다. 뉴 MINI 쿠퍼 5도어는 최고 출력 136마력이며, 고성능 모델인 뉴 MINI 쿠퍼 S는 192마력이다.

포르쉐는 뉴 카이엔 S E-하이브리드를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한다. 프리미엄 SUV 세그먼트의 첫 번째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뉴 카이엔 S E-하이브리드는 3.4리터의 연료로 100km를 운행할 수 있으며, CO2 배출량은 79g/km다.

/김태곤기자 ferrari@metroseoul.co.kr

한국CCO클럽 창립 발기인 회의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직 대기업 홍보임원들을 주축으로 한 '최고소통책임자(CCO)클럽' 발기인 회의가 열려 참석자들이 축하박수를 치고 있다. 한국CCO 클럽은 올해 안에 사단법인으로 출범하고, 기업의 소통과 관련된 조사·연구·분석·기고 등의 사업을 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제조업 체감경기, 세월호 사고 이후 첫반등

국내 제조업 체감경기가 세월호 사고 이후 처음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4로 전월보다 2포인트 올랐다.

제조업 BSI는 지난 4월 82에서 세월호 참사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5월 79로 꺾였다. 이후 6월 77, 7월 74, 지난달 72로 4개월 연속 떨어졌으나 이번에 가까스로 반등했다. 10월 업황 전망 BSI도 78로 전월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얼어붙었던 제조업 체감경기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은 다행이지만, 좋은 수준은 아니다.

BSI는 기업이 느끼는 경기 상황을 지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어야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나쁘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하는데 지수는 70선에 머물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제조업 체감경기가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기준금리 인하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중소기업(65→71)과 내수기업(71→76)은 체감경기가 좋아졌지만 대기업(76)과 수출기업(72)은 변동이 없었다.

이달 들어 갤럭시 노트4 등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되고 LCD(액정표시장치) 부품업체들의 수주 기대감이 증가하면서 전기전자업종의 중소 부품업체 위주로 체감경기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민지기자 minji@

삼성SDS 공모가 19만원?

이재용부회장 지분 1조6500억

오는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인 삼성SDS의 공모가가 20만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 측이 한국거래소 측에 제시한 희망공모가는 17만~19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는 장외 시장인 K-OTC 거래가격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삼성SDS의 상장 공모가는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한 수요 예측 결과를 근거로 최종 결정된다.

삼성SDS의 공모가가 19만원으로 결정될 경우 시가총액은 공모 기준 14조7000억원인데, 이는 KB금융지주 다음 자리인 14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지분 가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오너 일가 중 삼성SDS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 부회장 지분은 11.25%이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이 각각 3.90%, 이건희 회장 0.01%다. 삼성전자(22.58%), 삼성물산(17.08%), 삼성전기(7.88%) 역시 주요 주주다.

공모가가 19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는 1조6538억원이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의 지분가치는 각각 5736억원에 달한다.

삼성생명 등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성SDS의 주가는 상장 후 한동안 상승할 가능성이 커 이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지분가치도 커질 전망이다.

/이현진기자 jinny@

'인생 2막' 125조 '실버마켓' 뜬다

은행권, 브랜드·패키지상품 개발 등 시장 공략 본격화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수익성 악화에 빠진 주요 은행들이 '실버마켓'을 주목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향후 은퇴금융 시장 규모가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국내 실버마켓 규모가 2010년 33조2000억원에서 오는 2020년 125조원으로 10년 새 3.8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새로운 은퇴 영업 브랜드를 만들거나 은퇴 후 자금수요를 겨냥한 금융상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은행들이 마련한 은퇴 패키지 상품이다. 흩어져 있는 은퇴소득을 하나의 전용통장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KB국민은행은 노후설계 서비스인 'KB골든라이프 서비스'를 출시해 고객의 은퇴준비를 돕고 있다. 0세부터 100세까지 생애주기별 노후준비진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영업점에서 준비자산, 은퇴 후 희망 생활비 등 문항 입력을 통해 노후생활을 위한 필요 자금과 재무 상황을 진단하고 개인별 맞춤 상품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 출범 2주년을 맞아 이달 초부터 전국 57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KB골든라이프 특화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특화영업점에서는 노후설계 마스터가 고객별 맞춤 노후설계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은퇴설계 브랜드인 '신한미래설계'를 발표하고 은퇴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를 위해 거점점포에 미래설계센터를 열고 전문가들을 배치했다. 기존 은퇴서비스가 주로 연금상품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해왔다면, 앞으로는 은퇴자금을 준비하면서 모자라는 자금은 불리고, 은퇴 생활비를 관리하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은퇴생활비전용 통장인 '미래설계통장'도 함께 선보였다. 이 통장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흩어져 있는 은퇴소득을 하나로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계좌수가 지난 8월말 현재 10만좌를 돌파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올 연말에는 60만 계좌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나은행은 은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은퇴 후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가꿔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행복디자인'이란 브랜드를 만들었다. 정기적으로 건강, 취미, 여가, 인간관계 등 비재무 주제로 '행복브리즈'라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행복 디자인 은퇴 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 상품도 제공한다. 행복연금통장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모든 연금을 한계좌에 관리하는 연금수급자 전용통장이다. 4대 공적연금 수령자 또는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수령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기업은행도 지난 8월 은퇴금융 브랜드인 'IBK평생설계'를 선보였다. 금융지원 솔루션과 생활지원 솔루션으로 구분해 재무적, 비재무적 은퇴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30~40대 은퇴준비고객, 50대 은퇴예비고객, 60대 이상 은퇴고객으로 나눠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윤희기자 min @metroseoul.co.kr

기술력 우수 中企위한 대출상품 출시 농협은행은 30일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NH기술평가우수기업대출'과 'NH기술우수기업 이자보전대출' 등 신상품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제공

車보험 손해율 초과 '비상'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적정 손해율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손해율을 초과하면 그만큼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경영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 비상이 걸리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빅3인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각각 85.5%, 93.5%, 88.0%다. 이는 적정 손해율인 77.0%를 모두 초과한 것이다.

적정 손해율은 사업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이 같은 손익분기점 수준을 의미한다.

이외에 주요 손보사의 손해율도 모두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

MG손해보험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1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흥국화재(103.0%), 악사다이렉트(95.0%), 메리츠화재(94.4%), 현대하이카다이렉트(93.9%), 한화손해보험(93.4%), LIG손해보험(92.9%), 롯데손해보험(92.6%), 더케이손해보험(89.2%) 순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무면허·음주운전자 사고 한 건당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한도를 대인 피해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김형석기자 khs@

빙빙 돌고, 비틀비틀…어지럼증 원인은?

어지럼증 환자들은 흔히 '빙글빙글 돈다', '눈 앞이 캄캄하다', '몸이 붕 떠 있는 듯하다', '머리가 맑지 않다'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지럼증이 '빈혈 때문이다'라고 스스로 진단하여 신경 보조 식품이나 빈혈약을 복용하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그리고 위험한 생각이다.

어지럼증은 크게 말초 전정신경 또는 중추 신경계의 이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말초성 어지럼증은 돌발성 체위성 어지럼증,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등이 있고, 중추성 어지럼증은 뇌혈관질환, 뇌종양, 편두통이 대표적이다. 어지럼증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뇌신경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다. 중추성 어지럼증으로 불리는 이 증상은 뇌혈관의 이상, 동맥 경화 등에 의해 뇌의 평형기능이 손상되어 나타난다.

어지럼증이 지속될 경우 신경과에서 평형기능 검사와 뇌혈류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평형기능 검사는 어지럼증의 말초성 원인과 중추성 원인을 감별하는 중요한 검사이다. 뇌혈류검사는 뇌혈관을 초음파로 직접 검사하여 두통 및 어지럼증이 원인이 되는 뇌혈관 이상을 알 수 있으며 뇌졸중과 같은 중요한 뇌혈관 질환을 조기 진단 및 예방할 수 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의 40%정도는 발병 시에 어지럼증을 호소한다. 따라서 아무리 가벼운 정도라고 해도 어지럼증은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 특히 고혈압, 당뇨, 비만, 가족 중에 뇌졸중이 있었던 경우에는 반드시 뇌 혈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어지럼증이 지속될 경우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검사를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움: 김현수 신경과 정신과 의원
www.CAREBRAIN.co.kr
02-712-0900

■김현수 원장 약력
신경과 전문의

웰컴저축銀, 본사 이전 이벤트

웰컴저축은행이 본사 이전을 기념해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를 연 2.7%에서 2.8%로 올려 판매한다.

30일 웰컴저축은행은 최근 본사와 본점영업부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구로구 구로동 서울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지역으로 이전한 기념으로 금리를 0.1%올려 판매한다고 밝혔다.

손종주 웰컴저축은행 대표(앞줄 오른쪽 다섯째)와 임직원들이 본사 이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 제공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근로장려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상대로 연 8.0% 금리의 '웰컴디딤돌적금'도 출시했다.

웰컴디딤돌적금은 1년 정기적금 금리인 3.6%에 우대금리 4.4%포인트가 적용된다. 가입기간은 12개월이며 월 1만원 이상 50만원이하 금액을 납입할 수 있다.

또 결혼·출산·입원·주택 구매 등 특별한 사유로 중도 해지할 때는 연 8.0% 금리를 보전한다. 일반 중도해지를 할 때는 연 3.6%의 금리를 적용한다.

/여다정기자 ···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

"중국 RQFII 선점하라"

신한 vs 미래 선발주자 경쟁 돌입

중국 금융당국이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제도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중국 투자 수요를 잡으려는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경쟁이 뜨겁다.

신한BNPP파리바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선발주자로 나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RQFII는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시장에서 위안화로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중국 금융당국이 국가별, 기관별로 RQFII 한도를 부여하며 이 자격을 승인받은 해외 금융기관만이 중국 본토 금융상품에 위안화로 투자할 수 있다.

2011년 처음 만들어진 이 제도는 초기에는 홍콩 소재 중국계 금융기관에만 적용됐으나 점차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올해 6월 말 현재 홍콩·대만·영국·프랑스·싱가포르 등 5개국 66개 기관에 5860억 위안(100조원)어치를 허용 중이다.

한국과 독일은 지난 7월 초 RQFII 자격을 받았다.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5년부터 800억 위안(13조6700억원) 규모의 RQFII가 국내 소재 금융기관들에 본격 승인될 전망이다.

국내의 경우 RQFII 선두주자는 신한BNPP파리바자산운용이다.

신한BNPP는 지난 8월 국내 자산운용사 중 처음으로 50억 위안(8500억원) 규모의 RQFII 자격을 신청했으며 이르면 내년 1분기 안으로 다양한 중국 채권형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장덕진 신한BNPP 부사장은 "한국의 RQFII 한도를 제일 먼저 신청했으며 향후 이 시장에서 발빠르게 상품을 출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RQFII를 통해 투자하고자 한다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상장지수펀드(ETF)를 눈여겨볼 만 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6일 홍콩 RQFII 자격을 활용한 ETF를 홍콩 증시에 상장했다.

해당 ETF는 중국 본토 상해와 심천거래소에 상장한 주식 중 우량종목 300개를 선별한 CSI300 기초 추종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 홍콩 법인을 통해 중국증권감독위원회(CSRC)로부터 13억 위안(2200억원) 규모의 RQFII를 획득했다.

이 가운데 공모형 투자 한도는 5억 위안(850억원)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에 상장한 주식형 ETF는 400억원 규모"라며 "나머지 자격 한도는 투자자의 수요에 따라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홍콩 법인을 통해 현재 RQFII 한도를 획득할 수 있는 KDB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도 중국 시장의 추이를 보면서 RQFII 신청을 신중하게 검토중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중국이 부침이 있는 시장인 만큼 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최대 연 9.30% 수익추구
총 700억원 규모

ELS 8종, DLS 5종
DLB 1종 공모

대우증권, 최대 연 9.3%상품 판매

KDB대우증권은 30일부터 ELS 8종, DLS 5종, DLB 1종 등 13종을 총 700억원 규모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제11898회 KOSPI200-HSCEI-EuroStoxx50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는 3년 만기 상품이다.

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기준가격의 92%(6개월), 90%(12개월), 88%(18개월), 86%(24개월), 84%(30개월), 82%(36개월) 이상인 경우 연 9.30% 수익을 제공한다.

조기상환 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투자 기간 중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만기에 연 9.30%의 수익을 지급한다.

한편 '제1850회 WTI-HSCEI-EuroStoxx50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DLS'는 만기 3년 6개월 자동조기상환 상품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기준가격의 95%(6~12개월), 90%(18~24개월), 85%(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8.60% 수익을 제공한다.

이번 ELS/ELB 및 DLS/DLB 모두 10월 2일 오전 11시까지 판매한다. 최소 1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김은정 기자

중국주식, 제대로 알고 투자하세요!

[상해A주식 상장편람]
사전예약 이벤트 실시

SSE180, SSE380, A-H동시상장 전종목
총 568종목, 1,600여 페이지 분량

"중국 주식 투자 비법 알려줍니다" 신한금융투자는 30일 후강퉁(중국-홍콩간 주식 직접거래 허용정책) 실시를 앞두고 중국 A주에 대한 정보를 담은 '상해A주식 상장편람'을 발간했다. /신한금융투자제공

농협생명, 생보시장서 '돌풍'

수입보험료 2위로 초회보험료 삼성 앞질러

농협생명이 생보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업계 2, 3위인 교보와 한화생명의 시장점유율을 뛰어넘은데 이어 방카슈랑스 영향으로 초회보험료도 부동의 1위 삼성생명을 앞질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3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올해 상반기 5조3633억원의 일반계정 수입보험료를 기록해 삼성생명(8조5967억원)에 이어 업계 2위를 기록했다.

수입보험료를 통한 농협생명의 올해 상반기 시장점유율은 14%다. 이는 같은 기간 한화생명(12%)과 교보생명(10.4%)을 앞지른 수치다.

올해 1분기(3월~6월)만 보면 농

NH농협생명

협생명은 2조7106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하며 시장점유율 14.1%로 한화생명과의 점유율 차이는 2.5%포인트까지 앞서고 있다.

계약 후 첫회 납입보험료인 초회보험료 분야에서는 이미 삼성생명을 앞질렀다.

올 상반기 농협생명의 초회보험료는 2조1588억원으로 삼성생명(1조3324억원)보다 무려 8265억원이나 많았다.

농협생명은 설계사 규모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농협생명의 설계사 수는 2700명으로 2012년 출범 때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인 지급여력(RBC)비율도 지난해 말 262.1%에서 올해 3월 말(281.9%), 6월 말(310.3%)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여세를 몰아 농협생명은 오는 2020년까지 총자산 74조원, 지급여력(RBC)비율 1등급, 보장성보험 비중 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보험업법이 아닌 농협법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 급격한 성장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

농협법을 적용받는 농협은 한 금융사에서 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도록 한 '방카 25%룰'의 적용도 오는 2017년 3월까지 유예받았다.

이미 5700여개에 달하는 지역단위 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됐다. /송혜어기자

삼성중공업 "2020년 매출 40조 목표"

박대영 사장 "엔지니어링과 합병 해양플랜트 등 시너지 기대"

오는 12월1일 삼성엔지니어링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2020년 매출 40조원 규모의 글로벌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은 30일 거제도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초청해 기업설명회를 열고 "이번 합병은 두 회사가 처한 현안 해결과 위기 극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며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합병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오른쪽)과 박중흠 삼성엔지니어링 사장이 30일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애널리스트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년 매출 40조원 달성을 위해 ▲조선 6조원 ▲해양시추설비 4조원 ▲해양생산설비 8조원 ▲화공플랜트 11조원 ▲발전설비 4조원 ▲산업환경 2.5조원 등 사업분야별 세부 목표와 전략도 소개했다.

그는 "합병의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큰 분야는 해양생산설비"라며 "삼성엔지니어링의 설계 인력 가운데 해양플랜트 상세 설계가 가능한 인원이 약 1000명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육상 해양플랜트 설계 인력을 신규로 육성하는 데는 3~5년이 걸리지만, 육상플랜트 설계 인력을 해양화하는 데는 6개월 밖에 걸리지 않는다"면서 해양플랜트 설계 역량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피력했다. 육상과 해양플랜트에 적용되는 기술의 60%는 상호 호환이 가능하며 이 중 프로세스, 기계장치, 전기제어 등의 분야는 90%까지 호환되기 때문이다.

박 사장은 또 "삼성엔지니어링의 플랜트 기자재 조달 노하우를 해양플랜트에 적용하고 수요 기자재 위치를 공동 관리함으로써 조달과 납기관리 분야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시너지 효과"라고 강조했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연간 구매 물량은 10조 4000억원 규모. 통합구매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도 상당하다는 게 삼성중공업의 설명이다.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합병을 통해 해양플랜트사업에 진입하는 것은 물론 LNG 액화설비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을 효과로 꼽았다. 또 육상플랜트의 모듈화를 통한 수주경쟁력 향상도 기대된다.

합병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박 사장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합사의 부채비율은 223%가 된다"며 "기존 삼성중공업의 단독 부채비율 226%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합병을 통한 부채총계가 17조 8000억원 증가하지만 자본총계도 신주발행 등을 통해 3조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민준기자 mjk.m@metroseoul.co.kr

기업 82% "합격자 입사 포기 있다"

중견기업 이탈 최다

취업난이 심각해도 최종 합격자의 입사 포기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이탈은 중견기업이 가장 많았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673개사를 대상으로 '최종 합격자의 입사 포기 여부'에 대해 30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2%가 '합격을 포기한 최종 합격자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견기업(88.5%), 중소기업(81.7%), 대기업(75%) 순으로 합격 포기율이 높았다. 이들 기업의 최근 1년간 입사 포기자 비율은 평균 31%인 것으로 집계됐다.

합격자가 입사 포기 의사를 알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당일 결근'(60.1%)이었다. 이어 문자(37.3%), 전화(36.1%), e메일(5.4%) 순이었다.

입사 포기자들이 밝히는 포기사유 1위는 '다른 기업에 중복 합격해서'(36.2%·복수응답)였다. 이밖에 '더 나은 조건의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서'(26.3%), '직무가 적성에 안 맞을 것 같아서'(19.6%), '연봉이 만족스럽지 않아서'(11.6%), '교통편 등 출근이 불편해서'(8.2%) 등의 이유가 나타났다.

입사 포기자 발생 시 기업의 대처 방식 1위는 '해당 직무의 채용 재실시'(69.4%)였다. '차점자에게 연락해 충원'은 응답률 23.6%로 2위, '채용 계획 전면취소' 응답도 4.9%나 됐다.

92.1%의 기업은 합격자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그 방법으로 '채용 문의 시 성실한 답변', '근무조건 개선', '불합격자에게도 전형결과 통보', '기업 홍보 강화' 등이 거론됐다.

/양충희기자 unique@

쿼드코어 UHD 셋톱박스 출시 LG유플러스가 30일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세계 최초 쿼드코어 CPU를 탑재한 초고화질 UHD 셋톱박스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8월 땅값 0.14% 상승…46개월째 ↑

국토교통부는 8월 전국 땅값이 전월보다 0.14% 상승하며 2010년 11월 이후 46개월째 소폭의 오름세를 이어갔다고 30일 밝혔다.

8월까지의 지가변동률 누계치를 연도별로 보면 2010년 0.98%, 2011년 0.78%, 2012년 0.72%, 2013년 0.60%, 2014년 1.24%로 올해의 땅값 상승폭이 최근 5년래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0.13%와 0.15%씩 올랐다. 1~8월 누적 기준으로는 수도권은 1.2%, 지방은 0.13% 뛰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0.19%)은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 연속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경기(0.08%), 인천(0.12%)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지방은 세종시(0.48%)가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제주(0.29%) ▲대전·대구(0.25%) ▲부산, 경북(0.18%) 등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시·군·구별로 보면 대전 유성구(0.53%)의 땅값이 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박선옥기자 psoo@

동부제철에 6500억 투입 내달 초 확정

채권단 100% 찬성 가시화…동부그룹 반발 거세 불씨 여전

동부제철의 정상화를 위해 채권단이 마련한 정상화 방안이 채택될 전망이다.

30일 동부제철 채권단은 동부제철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결의 마감을 앞두고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정상화 방안에는 신규자금 6000억원 투입과 채무상환 유예, 53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 등 회생 방안이 담겼다. 특히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100대 1로 차등 감자해 김 회장의 경영권을 상실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정상화 방안은 의결권 보유기관이 100% 찬성해야만 가결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날 "일부 채권은행이 신규자금 지원을 반대하기도 했지만, 정상화 방안이 아닌 운영자금 지원안에 국한된 의견인 것으로 안다"며 정상화 방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부 채권기관이 정상화 방안 찬성 의결을 위해 경영협의회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해 최종 가결 시점은 다음달 2일이나 다음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채권단이 정상화방안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동부그룹의 반발이 거세 갈등의 불씨는 남게 된다. 동부 측은 채권단이 실사 과정에서 공장 자산가치를 장부가로 하지 않고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등 지나친 평가기준을 들이댔다고 주장했다. 100대 1 차등감자를 적용하고 우선매수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도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을 거부하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가야 하는데 동부제철 입장에서는 득이 될 게 없다"며 김 회장의 경영권 상실을 기정사실화 했다.

다만 채권단 관계자는 "정상화 추진과정에서 김 회장의 추가적인 희생과 노력이 인정될 경우 채권단 협의를 통해 우선매수권 부여 문제를 논의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네이버 서라' 다음카카오 오늘 출범

인터넷 판도 급변 조짐 — 코스닥 1위 기업 등극

원조 포털과 모바일 공룡의 만남 '다음카카오'가 10월 1일 공식 출범한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는 10월 1일 오전 합병법인 다음카카오의 공식 출범식을 갖고 향후 사업계획과 새로운 기업 로고 등을 발표한다. 출범식 명칭은 다음카카오의 '새로운 출발'로 정했다. 이날 새로 선임된 대표가 직접 나와 다음카카오의 출범을 선언할 예정이다.

다음카카오 1기 선장은 최세훈(다음 대표)·이석우(카카오 공동대표)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1인 대표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가 보유한 모바일 플랫폼, 다음의 검색광고 네트워크 등을 발판삼아 모바일 사업 추진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1995년 설립된 다음은 검색, 한메일, 카페 등 우리나라 초창기 인터넷 트렌드를 이끌어 왔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포털 업계 점유율 1위였지만 현재는 네이버에 밀려 점유율 20%로 2위다. 2006년 설립된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시작으로 모바일 시대 플랫폼 강자로 고속성장했다. 압도적인 국내 점유율 92%를 토대로 게임, 쇼핑, 금융, 뉴스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새 둥지는 판교에 꾸려진다. 다음의 자회사 인력을 제외한 다음카카오의 순수 인력 규모는 약 2300명이다. 양사는 제주 본사에서 근무할 인원을 뺀 나머지 1700여명이 함께 일할 수도권 사무공간을 물색한 끝에 결국 카카오 본사가 있는 판교를 택했다. 판교에 테크노밸리가 형성됐을 뿐 아니라 3000명 가까운 인원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서울 시내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최근 인사조직개편 잠정안을 마련했다. 잠정안에 따르면 최근 18개팀의 스태프 조직 중에서 카카오 출신이 13개팀의 팀장을 맡는다. 다음 출신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뉴스, 검색 등 5개 팀장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는 각각 8월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을 마무리했다. 업계는 통합법인 다음카카오가 출범하면 현재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약 4조2000억원)을 제치고 코스닥 대표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다문화가정 위한 쿠킹 클래스 LG전자는 30일 서울 LG전자 베스트샵 강남본점에서 베트남 출신 주부와 한국인 주부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베트남 음식 쿠킹 클래스'를 개최했다. /LG전자 제공

이용구(오른쪽) 한글과컴퓨터 대표와 오중석 작가가 '이지포토3 VP' 출시를 기념해 홍보대사 위촉식을 하고 있다. /한컴 제공

어도비 포토샵 전성기 끝나나?

한컴 '이지포토3 VP'로 도전장

'뽀샵(디지털 사진 보정)'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어도비의 '포토샵'이 오랜만에 적수를 만났다.

국내 기업인 한글과컴퓨터가 더 강력해진 이미지편집 소프트웨어를 들고 나왔다.

한컴은 30일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이지포토3 VP'를 출시했다. 전작인 '이지포토3'의 기능과 편의를 1년 만에 대폭 보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지포토3 VP'는 포토샵 전용 파일인 PSD로 보내기가 가능하고 포토샵의 기본 기능도 100% 구현한다. 여기에 보정 작업을 간편하고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액션'이 추가됐다.

이지포토만의 '카메라 자동인식 기능'도 강화됐다. 인식 가능한 카메라의 종류를 총 231종으로 확대시키는 등 핵심적인 기능들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했다.

이지포토는 지난해 12월 일본 온라인 시장에 진출했고 지난 5월에는 북미를 포함한 영어권 지역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등 해외시장도 노크하고 있다.

국산 SW로는 처음 한국생산성본부의 국가공인 컴퓨터그래픽 자격시험인 GTQ에 포함돼 올해 2월 'GTQ(S/W 이지포토)'를 론칭했고 경기도 시흥의 정왕초등학교 학생 30명은 외산 SW대신 이지포토로 GTQ에 응시해 전원이 합격하는 등 사용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지포토3 VP를 홍보하는 오중석 사진작가는 이지포토를 직접 사용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소외 청소년과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진행하는 등 캠페인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오 작가는 "외산 일색인 국내 시장에 우수한 국산 SW가 등장해 뿌듯하다. 국산 SW를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

보다폰 "글로벌 기업 22% 사물통신 도입"

2016년 절반 이상의 기업이 M2M 활용

전 세계 기업 중 22%가 사물통신(Machine to Machine, 이하 M2M)을 이미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이동통신기업 보다폰은 한국 진출 1주년을 기념해 30일 서울 중구 프라자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4년 세계 M2M 시장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서베리서치가 전 세계 7개 산업분야 600명 이상의 조직 대표들의 의견을 모은 것이다.

M2M은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기기들을 무선으로 연결해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올해 M2M 시장은 지난해에 비해 80%나 성장해 전 세계 조직의 22%가 M2M 솔루션을 도입해 활용 중이다.

특히 올해는 AMAP(아프리카·중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이 M2M 도입률에서 미국 지역을 근소하게 앞질렀다. AMAP 지역 기반 기업들의 M2M 솔루션 평균 도입률은 2013년에 비해 15% 상승한 27%에 달했고 유럽지역과 아메리카 대륙은 각각 21%, 17%를 기록했다.

AMAP 지역 기반의 기업들은 2015년 M2M 도입률 48%를 기록하는 등 향후 2년간 다른 지역보다 지속적으로 앞서 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보다폰 측은 2016년 세계 모든 지역의 도입률이 평균 55%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M2M 도입의 선도 산업은 자동차, 소비자 가전, 에너지와 공익사업 분야로 조사됐다. 특히 소비자 가전 분야에서 M2M이 창고를 넘어 거실까지 확대 도입되면서 선두주자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보다폰 글로벌 엔터프라이즈의 니클라스 에카브(Niklas Ekarv) M2M 아태지역 총괄 책임자는 "아태지역 기업들이 사물인터넷의 상업적 잠재력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M2M 도입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혜인기자 hung0104@

우체국알뜰폰, '기본료 0원' 내놔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알뜰폰 판매 1주년을 맞아 '월 기본료 0원 요금제'를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되는 0원 요금제는 월 기본료가 없고, 약정기간과 위약금이 없으며 6개월 이상 이용고객은 가입비도 면제되는 국내 오프라인 최저요금제다.

우체국알뜰폰은 저렴한 기본료로 중장년층에 인기가 있어 서비스 1년만에 14만 가입자를 돌파했다. 새로 출시하는 기본료 0원 요금제도 음성통화량이 적거나 수신위주의 장년층이 특히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체국알뜰폰은 음성통화 단가가 1초당 1.2원인 요금제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는 일반적인 단가인 초당 1.8원보다 33.3% 저렴해 100분 통화시 통화료만 3600원이 절감된다. 또 음성통화를 월 90분 사용할 경우 기존통신사보다 약 1만3700원(83.5%) 절감되는 요금제도 출시된다. 아울러 기존 이통사의 3G, LTE 스마트폰 정액 상품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한 5종의 정액상품도 선보인다.

향후 우체국알뜰폰의 접근성과 소비자 선택권도 향상된다. 10월 1일부터 판매우체국이 24개 증가한 총 651곳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부터는 올해 추가되는 알뜰폰사업자 5개사를 더해 총 11개 알뜰폰사업자의 상품이 나올 예정이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알뜰폰의 저렴한 기본료와 상품 경쟁으로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403@

웅~찰칵! '웨어러블 드론' 떴다

손목에 휘감고 이동하는 '셀카 드론' 등장…암벽등반 촬영도 간단

글로벌 이코노미
/조선미기자 seonmi@

셀카봉(셀카 촬영 도구)도 필요없다. 머지않아 손목에서 셀카 드론이 떠오른다.

최근 미국 IT 전문매체 슬래시기어 등은 스마트 워치와 구글 글라스 등이 선점한 웨어러블(착용형) 기기 시장의 차세대 주자로 셀카 드론을 소개했다. 손목에서 띄워 자유자재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드론이 셀카 시장을 뒤흔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초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글로벌 프로젝트 '메이크 잇 웨어러블 챌린지'를 시작했다. 총 상금이 100만 달러(약 10억원)에 달하는 기술 경진 대회로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자리다. 몇 차례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얼마 전 결선에 진출한 후보가 공개됐다. 이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후보는 손목에 휘감기는 웨어러블 드론 '닉시'였다.

닉시는 프로펠러 4개가 달린 소형 드론으로 카메라와 비디오기 장착돼 있다. 드론의 다리를 손목에 시계 밴드처럼 감아 이동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위해 버튼을 누르면 닉시는 '윙' 하는 소리를 내며 공중으로 떠오른다.

상공에서 가벼운 점팔을 마친 닉시는 곧바로 촬영을 시작한다. 친구들과 물살을 가르며 수상 스키를 타고 엄지 등반을 하는 아찔한 모습이 생생하게 담긴다. 삼각대에 사진기를 세워 단체 사진을 찍고 셀카봉을 빙빙 돌리며 영상을 녹화하는 일은 조만간 빛 바랜 추억이 되는 셈이다.

사진 수백 장을 '빛의 속도'로 찍은 셀카 드론은 촬영을 마친 뒤 사용자의 손목 위로 복귀한다. 부메랑 버튼만 누르면 된다. 사진 촬영과 녹화 등 모든 기능은 무선 리모콘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다.

닉시는 시제품으로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조기 기술의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됐다. 닉시 개발에 참여한 크리스토퍼 코스톨은 "닉시로 전문 다큐멘터리 촬영팀 뺨치는 영상과 생동감 넘치는 사진을 손쉽게 담아낼 수 있다"며 "착용형 기기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웨어러블 드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웨어러블 기기 시장은 올해 약 55억 달러(약 5조8000억원) 규모에서 향후 5년 내 10배 이상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中 위안화-유로 직거래 시작

인민은행 "통화 교환비용 줄고 무역 증가"

중국 금융시장에서 위안화와 유로화의 직거래가 시작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승인에 따라 이날부터 금융시장에서 위안화와 유로화의 직거래가 이뤄졌다.

유로화는 미국·호주·뉴질랜드 달러와 일본 엔, 영국 파운드, 러시아 루블, 말레이시아 링깃에 이어 8번째로 중국에서 위안화와 직거래되는 화폐가 됐다. 현재 위안화는 전 세계 무역거래에서 7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화폐다.

인민은행은 "향후 위안화와 유로화의 직거래로 두 통화의 교환 비용이 줄고 무역과 투자에서의 거래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초상은행의 류둥량 연구원은 이번 직거래를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류 연구원은 "중국에서 위안화와 달러가 아닌 통화의 교역량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기지기에는 미미한 정도"라며 "이번 직거래가 환율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미기자

미국 공공도서관 로봇 일꾼 투입

미국 코네티컷주의 웨스트하트 공공도서관이 오는 11월부터 로봇 한 쌍을 업무에 활용한다. '빈센트'(왼쪽)와 '낸시'로 명명된 이들 로봇은 어린아이 정도의 크기다. 프랑스 로봇 업체가 만든 이들 로봇은 춤을 추거나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다양한 동작을 취할 수 있고 19개 언어를 말할 수 있다. 사진은 최근 도서관에서 한 남성이 로봇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 /월스트리트저널

세계 최대 산유국은 사우디?

다음달 미국 1위 전망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를 인용해 10월에는 미국의 산유량이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사우디를 추월할 것이라고 30일 보도했다. 이미 지난 6월과 8월 미국의 산유량이 하루 평균 1150만 배럴로 사우디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IEA가 집계한 산유량에는 석유와 함께 에탄과 프로판 등 연관된 액화 추출물도 포함된다.

이처럼 미국의 산유량이 증가한 것은 수압파쇄나 수평시추 공법 등의 발전을 통해 기존에는 탐사가 어려웠던 지역까지 탐사할 수 있어 지면서 일어난 이른바 '셰일 혁명' 덕분이다.

'셰일 혁명'은 특히 오랫동안 채산성이 없다고 여겼던 텍사스와 다코타 북부 지역에 개발 붐을 일으켰다. 이 덕에 2008년 하루 500만 배럴에 불과하던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이달 837만 배럴까지 치솟았고, 올해 안에는 900만 배럴을 돌파할 전망이다.

자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미국의 전체 액체 연료 소비에서 수입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60%에서 내년에는 21%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에너지 수입의존도 감소는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개입을 줄이도록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고 FT는 전했다.

한편 미국과 사우디가 산유량 1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면서 국제 원유가격은 하락할 조짐이다. 북해산 브렌트유 기격은 지난주 배럴당 95.60 달러를 기록하면서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2년 초 배럴당 125 달러를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24%나 가격이 급락한 셈이다.

/서희원기자 knlee@

view
채널 뷰

새로 나온 책

북경대 품성학 강의
창사오칭/티핑포인트

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북경대는 중국인들이 선망하는 최고 명문이자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학교다. 북경대 출신 저명인사들이 밝히는 인생철학과 마음수양법을 생동감 있게 담았다. 자신감과 겸손, 당당함과 긍정적인 자세 등 올바른 품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름의 개성을 찾는 방법을 일러준다.

결정장애 세대
올리버 예게스/미래의 창

저자는 '결정장애 세대'의 원인은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 있다.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자라온 젊은이들이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나 세상이 디지털화하는 광경을 지켜보며 책보단 스마트폰이 친숙한 세대. 140자 이상 진지한 고민과 사고를 잘 할 줄 모르는 세대로 재탄생됐다는 것. 게다가 부모의 과잉보호까지 덤으로 받으며 당차지만 큰 어른으로 자랐다고 지적했다.

어둠 비탈의 식인나무
시마다 소지/검은숲

사회파 미스터리에 힘을 기울였던 서사가 약 8년 만에 다시 점성술사 탐정 미타라이 기요시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미스터리 작품을 선보였다. 에도 시대 저택장이었던 요코하마 어둠 비탈을 배경으로 그에 어울리는 기묘한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펼쳐지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미타라이가 활약한다. 가상의 범인에 대한 공포와 궁금증을 배가시켜 본격 미스터리의 맛을 더욱 살려준다.

직장인, 딱 3개월만 책 쓰기에 미쳐라
이은화/시너지북

한국 책쓰기 성공학 코칭협회에서 책 쓰기 코치로 활동중인 이은화씨가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이들이 쉽게 책을 써서 독자에서 저자로 인생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씨는 "약간의 실행력만 있다면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다"면서 "저자가 되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자존감이 높아질 뿐 아니라 더욱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왕비의 하루
이한우/김영사

가부장적 질서가 동지 이데올로기가 정착되어 남녀 차별이 극심했던 조선시대 여왕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사림에 의해 삿발된 최초의 국모 신덕왕후부터 여성 억압의 문화를 정착시킨 인수대비를 거쳐 왕비로서는 유일하게 정권을 장악했던 명성황후까지. 왕비는 무엇으로 권력을 장취하고 어떻게 남성 중심 문화에 맞섰는지 파헤쳤다.

/박지원기자

'파주 에디터스쿨' 개최

'북시티 국제출판포럼'도 함께 열려

중견 출판 편집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제1회 파주 에디터스쿨이 개최된다.

파주출판도시에서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파주 에디터스쿨'은 한국·중국·대만·일본의 편집자들의 경험을 통해 현직 편집자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동아시아 4개국 30여명의 출판 기획자와 마케터, 저작권 담당자들이 참여해 '독자에 대한 이해', '저작권', '인문 교양서와 문학 도서 기획·마케팅'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번 에디터스쿨은 쌍방향 소통을 통한 교육이 특징이다.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첫 날인 8일에는 각 국가의 연사가 '독자 어떻게 변해가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9일에는 '저작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인문 교양서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등이 연달아 강연되며 마지막 날은 '문학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책 어떻게 알릴 것인가'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에 앞서 10월 6일부터 7일까지 파주출판도시에서 한국·중국·일본·대만의 출판인·번역자·연구자 21명이 참가한 가운데 '파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이 열렸다.

/김수정기자

"당신이 생각하는 사형제도는?"

사형제도 모순 그린 최고의 '문제작'

범과 추리로 일본 문단에 등장한 히가시노 게이고가 그의 작가 인생 30주년에 걸맞은 명작 '공허한 십자가'를 들고 다시 독자들을 찾아왔다.

지난 5월 일본에서 출간된 이 책은 살인과 형벌·속죄·사형 제도의 존속·생명의 소중함 등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수제를 다루고 있지만 출판시장에 나오자마자 관련된 모든 순위를 갈아치우며 일본 서점가를 강타했다.

이야기는 어느 중학생 남녀의 풋풋하고 사랑스러운 만남과 함께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경영하는 나카하라 미치마사가 경찰의 전화를 받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이혼한 전 부인 사요코가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가족을 살해한 범인의 사형을 원한다. 하지만 범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다고 해도 죽은 가족이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괴리만이 남게 된다. 깊은 슬픔을 껴안은 피해자 유족이 '범인을 사형에 처하고 싶다'는 마음이 의외의 결과로 이어지는 결말을 통해 문제의식이 가슴에 울려 퍼지면서 사형 제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든다.

이 소설은 범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야 마땅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듯하지만 이는 표면에 불과할 뿐 본질은 속죄에 관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딸의 죽음과 전 부인의 죽음, 그리고 숨겨진 제3의 죽음. 이 세 사건과 뒤얽힌 과거, 아오키 가하라 수해에 관한 수수께끼가 서서히 밝혀진다. 이 과정에서 치밀하게 직조된 이야기가 놀라운 결말을 선사할 것이다. 책장을 덮은 때 당신은 과연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공허한 십자가
히가시노 게이고/자음과모음

/김수정기자 ks0015@metroseoul.co.kr

책 속 한 줄 — 부산으로 떠나는 영화여행

[illegible] 두 시간 남짓 어둠 속에서 빛이 부서지며 간들어내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혼자 여행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에 젖는다.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 [illegible]이 시작된다. 영화와 함께 할 수 있으니 혼자 가도 좋고 친구와 같이 가면 더 좋다. 이 가을 부산은 참 매력적이다. [illegible] 봄에는 전주, 가을에는 부산 《박소영/두베》 중-

/[illegible]기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디저트 레시피

화제의 책

친구의 디저트
최지혜/웰리스

디저트를 즐기기 위해 카페나 레스토랑을 찾았다면 올 가을엔 집에서 직접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친구의 디저트'엔 봄부터 겨울까지 각 계절에 잘 어울리는 56가지 사계절 디저트 레시피가 담겨있다.

저자는 디저트하면 떠오르는 복잡한 조리과정과 생소한 이름의 재료 대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에 직접 그린 그림을 곁들인 친절한 설명으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디저트를 소개한다. 특히 한라봉 파운드 케이크·홍도 스무디·우화과잼·고구마 라테 등 계절 식재료로 만든 디저트는 조리 과정이 까다롭지 않아 초보자도 어려움 없이 따라 할 수 있다.

저자 역시 전문 제과제빵사가 아닌 평범한 회사원으로 퇴근 후나 주말 등 자투리 시간에 도전해 볼만한 레시피를 주로 다루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블로그에서 브런치·도시락·디저트 등 만들기 쉽고 먹음직스러운 레시피를 소개해온 저자는 2011년 '친구의 식탁'을 펴내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선보인 바 있다. 이번 책은 '친구의 식탁' 두 번째 이야기로 식사 후 즐기는 달콤한 디저트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또 이 책에선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법한 일상 속 이야기도 함께 실었다. 정성껏 구운 티라미수 생일 케이크에 소녀처럼 기뻐하는 어머니의 모습, 떠나가는 동료를 위해 만든 단호박 양갱 등 각 요리에 얽힌 저자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에세이를 읽는 기분까지 선사한다.

저자는 "좋은 건 나누고 싶고 매일 보고 싶으며 오래 보고 싶은 것"이라며 "작은 과일 하나로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것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얻고 즐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반죽을 하고 과일을 듬뿍 올린 타르트를 굽는다"고 말한다.

/[illegible]기자

가구업계, '체험 마케팅'

"가격 부담 덜고 힐링까지"… 이벤트

가구 업계가 체험 마케팅을 통해 구매 전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태평양물산의 소프라움이 600만원에 해당하는 프리미엄 구스 침구 제품들을 웨스틴조선호텔(서울·부산)에서 1박2일간 체험해 볼 수 있는 '플넘버 소프라움'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그간 가격적인 부담감으로 선뜻 나서지 못했던 소비자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휴식 시간을 선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총 60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소프라움의 베스트 제품들로 꾸며진 웨스틴조선호텔 비즈니스 디럭스 룸에서 1박과 함께 조식과 클럽라운지 이용권 포함한 총 70만원 상당의 다양한 혜택들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다.

공식 페이스북에 접속해 '좋아요'를 누른 후 원하는 지역과 해당 날짜·지원 이유 등을 댓글로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모집은 1차(9월 29~10월 10일) 2차(11월 3~14일) 3차(12월 1~10일) 등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또 까사미아는 독점 수입하는 뉴질랜드 브랜드 '시타' 디자인의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이색 체험 마케팅을 벌인다. 오는 10월 31일까지 레스토랑 '까사밀'에서 브랜드 이름을 딴 시타 메뉴를 신제품 식기에 담아 선보이고 있다. 시타 메뉴 주문 시 식기 신제품은 20% 할인해준다.

까사미아 관계자는 "식사와 제품 체험 사교 등 복합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들의 호응이 높으며 레스토랑과 제품 판매 매장이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어 고객 상호 유입 효과도 큰 편"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살아 움직이는 예술작품 30일 노드 서울 인사동 ... 매장에서 프랑스 그래픽 아티스트 '말리카 파브르'의 콜라보레이션 작품을 재현한 모델들이 콜라보레이션 기획상품과 가을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왼쪽부터 대상 청정원 쿠킨 가츠동, 빙그레 '카오팟', 풀무원식품 팟타이

간편식으로 즐기는 '아시아의 맛'

즉석 일본식 덮밥·태국식 볶음밥 등 인기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국내 간편식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 식품업체들이 잇따라 전문점에서나 즐길 수 있었던 일본식 덮밥과 태국식 볶음밥, 베트남 쌀국수 등 아시아지역 다른 나라들의 메뉴를 간편식으로 만들어 선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대상 청정원은 최근 '쿠킨 가츠동' 2종을 내놨다. 일본식 돈까스 덮밥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컵밥 형태로 만들었다. 매콤새콤한 '오리엔탈 핫소스 가츠동'과 고소하고 담백한 '데리마요소스 가츠동' 2종이다. 기존 냉동 컵밥 제품들이 단순하게 볶음밥 형태였다면 이 제품은 밥 위에 등심돈까스와 볶음김치, 각종야채와 계란지단 등이 푸짐하게 올라가 있다. 3분간 간단히 전자레인지 조리 후 별첨된 특제소스와 김참깨후레이크를 넣고 비벼먹으면 된다.

빙그레의 '카오팟'은 국내 최대 규모의 태국 레스토랑인 '아한타이'와 합작해 개발한 태국 스타일의 냉동 볶음밥이다. 카오팟은 볶음밥의 태국식 명칭이다. '카오팟 무쌉(돼지고기 볶음밥)'과 '카오팟 꿍(새우 볶음밥)' 등 2종으로 구성됐다.

풀무원식품도 태국식 볶음쌀국수 '팟타이'를 출시했다. 점돌 등넓이 제면방식으로 만든 면을 팟타이 소스와 함께 볶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했다. 태국산 정통 피쉬소스와 100% 생 레몬과즙을 넣어 만든 특제 팟타이 소스가 전문점 수준의 팟타이를 맛볼 수 있다.

이마트의 가정간편식 브랜드 피코크는 정통 인도식 커리를 즉석 레토르트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토마토와 크림으로 만든 부드러운 치킨커리인 '무르그 마크니', 스파이시한 향신료로 만들어 매콤한 왕새우 비비큐 커리인 '징기 마살라', 고소하고 부드러운 쇠고기 커리인 '비프 코르마' 3종이다. 인도식 난과 커리가 함께 구성되어 있는 '난 & 치킨커리'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롯데푸드의 '포키오 베트남 쌀국수'는 쫄깃한 쌀국수 면발과 담백하고 시원한 쇠고기 국물이 잘 어우러진 제품이다. 준비된 그릇에 쌀국수 면과 분말스프, 건더기스프를 넣은 후 끓는 물을 붓고 4분간 두면 맛있는 쌀국수가 완성된다. 함께 들어있는 칠리소스는 취향에 따라 뿌려먹으면 된다.

/정영일기자 jyms@

강강술래 "자연 속에서 외식·힐링 한번에…"

늘봄농원점, 월 6만 명 찾는 외식명소로 인기
산림욕·라이브공연 즐기며 지친 심신 재충전
연말 900명 수용가능 초대형 신관 오픈 예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의 늘봄농원점이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가족·연인·친구 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 속 힐링 외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곳은 오픈 3년 만에 월평균 6만 명의 고객이 찾을 만큼 지역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2만여 평의 대지 곳곳에 다양한 휴식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계절 내내 심신을 추스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힐링 마케팅 덕분이다.

게다가 자작나무·느티나무 군락지에 자리잡은 매장에는 메타세콰이어길을 비롯해 곳곳에 산책로와 쉼터를 조성해 식사 후 산림욕을 즐기면서 재충전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시청률이 치솟고 있는 MBC의 '내 생애 봄날' 등 드라마와 영화 촬영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야외 정원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7팀의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간단한 음료와 함께 음악을 들으며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어 주부고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연말에는 전통 문화재 복원과 보수에 사용되는 전벽돌을 마감재로 사용하는 등 전통 한옥을 모티브로 9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6층 규모의 신본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늘봄농원점은 매일 밤 8시 반 이후 강강-술래-왕양념갈비와 한돈 돼지양념구이 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 증정하며, 한우스페셜 한우모듬구이를 시키면 주문 사람 수만큼 냉면을 준다.

/정영일기자

강강술래 늘봄농원점 야외공연 모습 강강술래 제공

나뚜루팝, 헬로키티 텀블러 선봬

최고급 천연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전문점 나뚜루팝(대표 노일식, www.natuur-pop.com)이 올해 40주년을 맞는 헬로키티와의 협업을 통해 '헬로키티 텀블러'를 출시하고 '헬로키티팩' 이벤트를 10월 1일부터 벌인다.

나뚜루팝 '헬로키티 텀블러'는 제품 뚜껑을 입체적인 헬로키티 얼굴로 만들어 귀여움을 한껏 부각 시킨 제품이다. 핑크와 레드 두 가지 색상으로 구성됐으며 스테인레스 재질로 제작돼 냉·온용로 모두 이용 가능하다. 가격은 1만5000원이다.

나뚜루팝은 헬로키티 텀블러 출시를 기념해 '헬로키티팩' 이벤트도 준비했다. '헬로키티팩'은 네가지 맛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는 쿼트컵(정가 1만3000원)과 헬로키티 텀블러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다. 전국 나뚜루팝 매장에서 정가보다 약 29% 할인된 2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트래블기자

뉴스&뉴스

CJ오쇼핑, 협력사 초청 '파트너스 행사'

● CJ오쇼핑이 지난 9월 29일 경기도 여주 해슬리 나인브릿지에서 50여개 주요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CJ오쇼핑 파트너스 클럽'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회사 측은 개별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마케팅 솔루션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패션과 IT의 만남… "수트에 스마트를"

로가디스 '스마트 수트 2.0'… 스타일·실용성 갖춰
NFC 내장 자동 에티켓 모드·명함 전송 등 기능 확대

제일모직 남성복 브랜드 로가디스가 패션과 IT 기술을 결합한 '로가디스 스마트 수트 2.0'을 선보였다.

제일모직 남성복 사업부장 최훈 상무는 30일 서울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출시한 수트는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로가디스 스마트 수트의 진화된 버전"이라며 "편안하고 스타일리시하면서 IT기능의 편의성을 더해 비즈니스맨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로가디스의 모델 배우 현빈이 참석해 스마트 수트 2.0을 직접 입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현빈은 "장시간 입고 CF촬영을 해도 불편함이 없었다"며 스마트 수트의 최대의 장점으로 '편안함'을 꼽았다.

스마트 수트 2.0은 업계 최초로 무선통신 모듈인 NFC(Near Field Communication) 태그를 상의 스마트폰 전용 주머니 안에 넣은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 포켓에 휴대폰을 넣었다 빼면 자동으로 화면 잠금이 해제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 등을 이용해 명함을 전송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할 때 무음과 전화수신이 차단되는 에티켓 모드 기능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면서도 남성복 본연의 패션성과 기능성은 놓치지 않았다.

라이크라 내추럴 스트레치 등의 소재를 활용해 오랜 시간 수트를 착용해야 하는 남성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어깨의 압박감을 최소화했다고 제일모직 측은 설명했다. 또한 특수 가공한 발열 안감을 상의 안쪽 전체에 적용해 일반 수트를 입었을 때 보다 2~3도 정도 따뜻하다.

이 밖에 지난 시즌까지 QR(Quick Response) 코드로 서비스 했던 주간 스타일링 팁 등의 정보는 NFC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량 제공할 계획이다.

스마트 수트 2.0 구입 고객에게는 최신 경제 경영 문화 이슈에 대한 삼성경제연구소 무료 영상 강의와 삼성뮤직 서비스 등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스마트 수트 2.0의 NFC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스마트폰 모델은 로가디스 공식 사이트(www.rogatis.com)와 애플리케이션(앱)의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30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로가디스 브랜드 모델인 배우 현빈이 스마트 수트 2.0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일모직 제공

최훈 상무는 "스마트 수트는 지속적으로 진화해 결제·교통·출입통제 등 IT부문은 물론 구매자의 편의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패션과 IT의 컨버전스(Convergence)를 통해 남성복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 수트 2.0은 3가지 모델로 출시되며 가격은 49만~69만원 선이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한국적 감성 핸드백 '수아스티'

30년 장인의 손길로 탄생—국내·외서 큰 인기

한국의 정서와 자연의 감성을 담은 핸드백 브랜드 '수아스티'(www.suasti.com)가 마니아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011년 런칭한 이 브랜드는 한글 캘리그라피를 활용한 텍스타일 프린팅과 자연을 모티브로 한 텍스타일 프린팅을 가죽, 실크, 면 등에 프린트해 제품의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30년 핸드백 장인의 손에 의해 모습을 드러내 화제가 됐다.

회사 측은 이 브랜드가 환경오염과 소음 공해로 지친 도시인들에게 자연의 감성을 위한 디자인으로 스트레스 자유의 효과를 준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나염방식인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과 천연염색, 천연안료를 사용한 실크스크린 나염 방식으로 디자인적인 독창성과 동시에 환경과 자연을 사랑하는 디자인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아스티는 산스크리트어로 'SU(좋은)'와 'ASTI(~이 되다)'라는 뜻으로 ▲좋은 감성과 디자인으로 ▲정성을 담아 다품종 소량 생산하고 ▲고객 맞춤 생산을 지향하며 ▲한국의 명품핸드백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 브랜드는 현재 서울 삼청동에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압구정동 편집샵인 '드위자'에 위치해 있다. 또 현대백화점 무역점의 '모노쉬프리미엄'에서 성황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중국 베이징 팍슨 백화점과 훈룽 sincere 백화점도 판매돼 한국 핸드백 브랜드의 이미지를 중국인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illegible]기자

GS샵 '윈터 컬렉션' GS샵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GS강서N타워에서 '2014 윈터컬렉션: 리듬 오브 더 스타일'을 개최하고 변화하는 디지털·모바일 시대의 패션산업 비전을 제시했다. 2012년 시작된 올해로 3회째를 맞은 GS샵의 윈터컬렉션은 '트렌드 리더 GS샵'이라는 가치 아래 GS샵의 가을·겨울 패션 컬렉션을 선보이는 행사로, 매년 감각적인 스타일을 제안하는 것은 물론 패션과 홈쇼핑 산업과 관련된 중요한 화두를 제시하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GS샵 제공

'한국형 세포라' 벨포트, 가로수길에 첫 선

프리미엄 화장품 편집숍—국내외 50여 개 브랜드

화장품 유통 멀티스토어 '벨포트'는 30일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500㎡ 규모로 첫 매장을 연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40여 개 해외 브랜드와 10여 개 국내 브랜드의 1500여 개 상품과 함께 스킨·네일케어 등의 토털 뷰티 서비스를 제공한다.

벨포트는 해외의 '세포라' 등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다. 프리미엄급 브랜드를 전문 취급하지만 저가부터 고가까지 폭 넓은 가격대의 상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입점 브랜드는 프리미엄과 매스티지·매스 등급 중심으로 구성됐다. 해외 브랜드로는 헝가리 오모로비짜, 미국 카고, 이탈리아 보테가 베르데 등이 있다. 국내 브랜드는 정구호 디자이너가 참여한 새로운 스킨케어 브랜드와 헤어스타일리스트 제트 론의 노하우를 담은 '트렁크 쇼 제트' 등이 입점했다.

벨포트 민영흔(사진) 대표는 "국내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해외 브랜드를 소개하고 국내 뷰티산업의 미래를 짊어질 브랜드를 발굴·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벨포트는 연내 서울 강북과 부산·대구·청주 등에 매장을 열고 지역별로 브랜드 및 상품 구성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illegible]기자

마담 뺑덕 으로 변신 감행한 정우성

“모든 것 받은 영화, 사랑할 수밖에 없죠”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정우성(41)의 2014년 행보는 어느 때보다도 바빴다. 영화 촬영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음 작품을 선택하며 쉼 없이 달렸다. '신의 한 수'로 오랜만에 정통 액션을 선보였던 정우성은 오는 2일 개봉을 앞둔 '마담 뺑덕'으로 생애 첫 치정 멜로에 도전했다.

'마담 뺑덕'은 효를 주제로 한 고전 '심청전'을 욕망과 집착의 텍스트로 변주한 작품이다. '남극일기' '헨젤과 그레텔' 등을 만든 임필성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심청전'에 등장하는 심학규와 뺑덕어멈의 관계에 집중해 사랑이라는 감정이 만들어내는 극한의 욕망을 그려냈다.

정우성이 연기한 학규는 명망 높은 대학교수에서 사랑을 저버린 대가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인물이다. 그는 '마담 뺑덕'의 출연 이유에 대해 "그 동안 해본 적 없었던 감정을 연기하는 도전이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그 말이 기존보다 좀 더 같은 멜로의 감정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우성에게 "치정" 멜로는 저유일 지언정 멜로는 그 동안 꾸준히 참여했던 장르였기 때문이다.

욕망·쾌락으로 몰락하는 대학교수 연기
인물의 사실적인 감정 표현 위해 파격 노출
데뷔 20주년 바쁜 행보 "현장이 가장 편해"

그러나 베일을 벗은 영화는 단순한 멜로가 아니었다. 사랑이 욕망이 되고 집착으로 변해가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담은 파국의 드라마다. 특히 반듯하고 젠틀한 이미지로 정우성은 기억된다면 영화 속 학규는 가히 충격에 가깝다. 겉보기에는 수트를 갖춰 입은 단정한 교수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술과 여자에 대한 욕망을 아무렇지 않은 듯 숨겨 놓은 에고이스트가 있다.

"학규는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굉장히 신경 쓰는 인물이에요. 시니컬하면서 자기 합리화도 상당하고요. 더불어 창작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상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방종과 쾌락을 쫓는 캐릭터죠. 그런 학규를 동의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해하면서 촬영하려고 했죠. 세상에는 여러 인간 군상이 있고 각자의 선택이 있으니까요."

영화는 학규가 스무 살 어린 덕이(이솜)를 만나 나누는 불같은 사랑과 자가은 복신 그리고 이어지는 덕이의 처연한 복수를 그린다. 특히 학규와 덕이가 사랑을 나누는 신 그리고 8년이 지난 뒤 또 다른 여인인 지은과 나누는 정사 신에서 정우성은 파격에 가까운 노출 연기를 감행했다. 욕망으로 몰락에 이르는 한 인물의 감정을 보다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었다.

"보다 리얼한 감정을 보여주기 위해 더 과감하고 치열하게 촬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촬영 전에도 감독님과 어떤 타협도 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인물들의 본질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 그것이 충분히 표현되느냐가 중요했지 벗고 촬영한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은과 나누는 정사도 단지 서브 캐릭터와의 베드신으로 보이지 않길 바랐어요. 몰락하는 학규의 몸짓으로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에 작정하고 수위를 정했죠."

정우성은 '마담 뺑덕'에 대해 "치정 멜로로 포장돼 있지만 알고 보면 윤리에 대한 교훈을 주는 영화"라고 설명했다. 윤리를 따르지 않고 본능적인 욕망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학규는 늘 좋은 이미지로 대중에게 각인되고 싶은 배우에게는 쉬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우성은 "배우는 하나의 캐릭터를 완성했을 때 그 가지도 커지고 이미지도 풍성해지는 것"이라며 "이미지 때문에 작품 선택에 제약을 둔다는 건 불행한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솔직히 학규를 보면서 '때는 노대체 뭐야'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웃음). 하지만 학규를 연기하고 나니 지금은 나 역시 본능에만 충실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내 욕망을 잘 컨트롤하며 살았는지 생각하게 돼요. 경직된 삶을 살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본능을 너무 쫓아가다 보면 어떤 선을 넘을 수도 있으니까요. 학규를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많은 걸 느낀 것 같아요."

정우성은 쉼처럼 쉴 줄 모른다. '마담 뺑덕'을 마친 뒤 그는 제작까지 도맡은 영화 '나를 잊지 말아요'를 촬영했다. 그리고 이미 차기작을 검토 중에 있다. 그는 "쉴 때도 무대 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가올 데뷔 21주년도 올해처럼 바쁜 것이다.

"스타로서 밖에 나올 때는 피곤하기도 해요. 하지만 현장에 있을 때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오로지 영화만 생각할 수 있어서 편해요. 배우라는 직업 그리고 영화라는 직업이 좋은 것은 어떤 장르를 선택하든지 간에 삶, 사랑, 관계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고민하고 완성해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으로서의 인생도 영화와 같이 성장해가는 것이겠죠. 무엇보다 영화를 통해 모든 걸 받았잖아요. 그러니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황정아(라운드테이블) 디자인/박은지

'일타쌍피' 안방·스크린 동시 공략 ★

정경호

정유미

'맨홀' 정경호·정유미·김새론… '슬로우비디오' 차태현

TV와 영화를 동시 공략하며 일거양득을 기대하는 배우가 눈에 띈다. 내달 8일 개봉되는 영화 '맨홀'의 정경호·정유미·김새론은 드라마에서 활약 중이다. 차태현은 KBS2 예능프로그램 '1박2일' 고정 멤버로 출연하며 내달 2일 영화 '슬로우 비디오' 개봉을 앞두고 있다.

정유미는 KBS2 월화극 '연애의 발견'에서 30대 여성의 현실적인 연애를 이야기한다. 그는 종영을 2회 앞두고 옛 애인과 현 연인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인공으로 한여름의 감정을 깊이 있게 표현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생활형 대사와 행동도 여성 시청자의 공감을 얻으며 연애 지침서가 되고 있다. 영화 '맨홀'에서는 하나뿐인 동생을 잃고 맨홀을 헤매게 되는 연서 역을 맡아 생애 첫 스릴러에 도전했다.

정유미와 함께 '맨홀'에 출연한 정경호와 김새론도 안방과 스크린을 모두 공략하고 있다. 특히 정경호는 두 장르를 넘나들며 극적인 매력을 보이며 변신한다. 영화에서는 맨홀 안에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바깥세상 사람들을 노리는 살인마 수철을 맡았다. SBS 주말극 '끝없는 사랑'에서는 서인애(황정음)에게 순애보적인 한광훈을 연기하고 있다.

김새론은 KBS2 금요드라마 '하이스쿨-러브온'에서 인간이 된 천사 이슬비를 소화하고 있다. 신비로운 분위기와 소녀다운 귀여운 모습이 천사 역할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맨홀'에서는 수철(정경호)의 표적이 되는 청각장애 소녀 수정을 맡았다. 다수의 작품에서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무게 있는 역할을 소화했던 그는 이번에도 아역 배우로서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새론

차태현

차태현은 '1박2일'에서 웃음이 헤프다는 점에서 힙합가수 MC해머의 이름을 차용한 'MC헤퍼'로 리얼 예능을 경험하고 있다. 방정맞은 즉각적인 호응으로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영화 '슬로우 비디오'에서도 예능 속 코믹한 이미지를 그대로 이어간다. 남들이 못 보는 찰나의 순간까지 포착하는 동체시력을 지닌 여장부 역을 맡았다. 굳이 변신을 감행하지 않는 차태현표 코믹 연기가 관객과 시청자를 모두 사로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효진기자 leonh@metroseoul.co.kr

이병헌 협박 다희·이지연 구속

배우 이병헌(44·사진)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50억을 요구하며 협박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 공갈 혐의로 다희와 이지연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세 사람은 지난 7월1일 지인의 소개로 함께 알게 돼 이후 몇 차례 만나면서 어울렸다. 이병헌이 이지연을 여자로서 좋아한다고 생각한 두 사람은 이성교제 대가로 이병헌에게 집이나 용돈 등을 받아낼 계획을 꾸몄다. 거절당하면 7월3일에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들이대 협박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14일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집을 사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이병헌은 오히려 '그만 만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두 사람은 이병헌과 포옹하는 장면을 연출해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30분께 이병헌을 서울 논현동 이지연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종처럼 포옹할 기회가 오지 않자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놓으며 현금 50억원을 요구했다. 이병헌은 곧바로 집을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람은 지난 1일 체포됐다. /손현정기자 sohin@

제시카 퇴출… 소녀시대 8인 체제로 간다

SM "제시카 개인 패션 사업 놓고 이해 관계 충돌"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제시카(사진)가 팀을 떠나게 됐다.

제시카는 30일 새벽 자신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회사와 소녀시대 8명으로부터 오늘부로 저는 더 이상 소녀시대의 멤버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다가오는 공식 스케줄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었으나 회사와 8명으로부터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소녀시대의 멤버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저는 소녀시대 활동을 우선시하며 적극적으로 전념하고 있는데 정당치 않은 이유로 이런 통보를 받아 매우 당혹스럽다"는 글을 영어와 한국어로 게재했다.

제시카의 글은 즉각 논란에 휩싸이며 퇴출 배경을 두고 각종 추측들이 쏟아졌다. 특히 이날 오전에 제시카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의 멤버만이 중국 전미팀 '2014 걸스 제네레이션 퍼스트 팬 파티-미스터 미스터 인 선전'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모습이 포착돼 제시카 퇴출설에 힘이 실렸다.

논란이 계속되자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후 1시 "올봄 제시카가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사에 앞으로 한 장의 앨범활동을 끝으로 팀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알려왔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SM 측은 "제시카의 갑작스런 이야기에도 당사와 소녀시대 멤버들은 소녀시대를 위해 좋은 방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고민해 왔다. 그러나 최근 소녀시대 활동에 대한 우선순위 및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조율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시카가 패션 관련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팀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당사는 8인 체제의 소녀시대 활동을 당초보다 앞당기는 것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며 "발표 시점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시카 본인의 시각으로 금일 새벽에 글이 게재됐다. 향후 당사는 8인 체제의 소녀시대 및 제시카의 개인 활동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매니지먼트를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민지기자 langkim@

"내 딸이 사라졌다
범인은 가족 중 한 명이다!"
tvN 일일드라마
가족의비밀
tvN 일일드라마의 부활!
신은경 김승수 차화연 류태준 이일화 호잉
10월 27일 {월} 저녁 8시 tvN 1화 방송 * 매주 {월~목} 방송

류현경 부일영화상 시상식 사회

바쁜 스케줄 속 부산국제영화제 찾아

배우 류현경(사진)이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열리는 제23회 부일영화상 시상식 사회를 맡았다.

30일 류현경 소속사 프레인TPC 측은 "류현경이 오는 2일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해 레드카펫을 밟고 다음날인 3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리는 제23회 부일영화상 사회를 맡는다"고 전했다.

부일영화상은 국내 최초의 영화상이다. 지난 1958년 제1회 시상식을 시작으로 16년 동안 한국영화계의 황금기를 구가하며 부산지역 최대의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 TV 보급으로 1973년 제16회 시상식 이후 중단되기도 했지만 2008년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제17회 행사를 재개해 올해로 23회를 맞았다.

류현경은 오는 2일 개봉 예정인 영화 '제보자'의 홍보 활동과 '쓰리 썸머 나잇'의 촬영으로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부산을 찾아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한편 제23회 부일영화상 시상식은 오는 3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대연회장 그랜드볼룸에서 최우수 작품상, 최우수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등의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병호기자

30일 오전 11시 CGV 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카트' 제작보고회에 부지영 감독(오른쪽)과 출연배우 염정아, 김영애, 문정희, 염정아, 천우희, 도경수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진영기자@son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화"

'카트'… 감독·배우·제작자 참여한 작품

여성들이 만든 의미 있는 영화가 극장가를 찾는다. 부지영 감독이 연출하고 염정아·문정희·김영애 등이 주연을 맡은 영화 '카트'다.

'카트'는 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한 뒤 이에 맞서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지금 '여대로가 좋아요'를 연출한 부지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건축학개론' 등을 만든 명필름이 제작했다.

30일 오전 11시 CGV 압구정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염정아는 "가정과 일밖에 몰랐던 한 여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뒤 이에 맞서 싸우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흥미롭고 공감됐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극중에서 염정아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모범적인 비정규직 계산원 선희 역을 맡았다. 그는 "마트에서 일하는 것과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생활의 전부인 선희는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 인물이었다"고 말했다.

청소원 대표이자 노조원들의 정신적인 지주인 순례 역을 맡은 김영애는 "처음에는 노동운동 영화로 보여 조금 망설였다"며 "막상 시나리오를 읽어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사회적 약자 계층의 이야기였다. 시나리오를 읽는 내내 '이래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털어놨다.

문정희는 싱글맘 비정규직 계산원 혜미를 연기했다. 그는 "영화가 세상을 많이 바꾼다고 생각한다"며 "작게나마 우리가 애써서 만든 영화가 소수의 주목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움과 용기와 힘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신예 배우들과 함께 한 젊은 배우들도 영화 출연에 대한 솔직한 소감을 밝혔다. 천우희는 자신과 또래인 20대 비정규직 계산원 미진을 연기했다. 그는 "단지 하나의 이슈로만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가족이나 생활의 현실이 있다"고 영화의 의미를 설명했다.

극중 선희의 아들 태영 역으로 스크린 데뷔에 나선 엑소 멤버 도경수는 "재미있게 연기했다"며 "질풍노도시기를 지내는 태영을 연기하기 위해 반항적인 이미지를 많이 고민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부지영 감독은 "지금 이 시대에 꼭 만들어져야 하는 영화였다"며 "리얼리티를 담으면서도 영화적인 드라마를 완성하는 것도 고민됐다"고 말했다. '카트'는 오는 11월 개봉 예정이다.

/김명은기자 sokim@metroseoul.co.kr

'좀비가 아니라…' 롯데 시나리오 대상

"대중적·트렌디한 스토리, 독창적 소재"

롯데시네마와 롯데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는 제3회 롯데 시나리오 공모대전 대상에 '좀비가 아니라 구울'(최시현)이 뽑혔다.

30일 롯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공모대전에 '악공'(권순규) '아파트'(박성우) '대리가족'(송윤희) 등 총 4편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당선작들은 지난 7월12일부터 7월26일까지 2주일 동안 접수된 총 621편의 접수작 중 1차 예심, 2차 본심, 3차 최종 심사를 거쳐 치열한 경쟁 끝에 선정됐다. 제작자, 감독, 프로듀서, 기자, 매니지먼트사 등이 참여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속에서 심사를 진행했다.

1억의 상금을 받게 된 '좀비가 아니라 구울'은 구울이 된 남자가 사랑을 느낀 뒤 죽게 되면서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롯데엔터테인먼트 측은 "대중성과 트렌디함을 모두 갖춘 스토리, 그리고 독창성이 엿보이는 소재를 활용한 기획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며 "시나리오의 완성도와 제작 가능성, 그리고 흥행성에 가장 높은 작품으로 평가 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4일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 롯데의 밤 행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병호기자

CGV 홍대 2일 그랜드 오픈

영화관·아트 조합으로 차별화

CGV가 젊음과 예술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홍대 중심부에 새로운 콘셉트의 멀티플렉스를 오픈한다.

30일 CGV는 "오는 2일 홍대입구역 1번 출구 연결 건물에 총 6개관 376석 규모의 CGV 홍대를 개관한다"고 밝혔다.

CGV 홍대는 '영화관'과 '아트'의 색다른 조합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문화와 예술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 소통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자인부터 차별화했다. 독일 베를린에서 가장 뜨거운 장소로 떠오른 베르크하인에서 기본적인 디자인 콘셉트를 가져왔다. 한국 멀티플렉스를 선도했던 노하우를 살려 영상·조명·소리 등 영사 기술을 활용한 색다른 형태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었다.

또한 CGV 여의도에 이어 신관에 스크린X 상영관을 도입한다. 스크린X는 전면은 물론 양쪽 벽면도 스크린으로 활용해 시야각을 넓힌 상영관으로 4DX와 함께 CGV가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으로 주력 중인 모델이다.

이밖에도 젊은이들이 오가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해 지하철역에서 건물 입구로 곧바로 들어올 수 있게 해 교통 편의성을 높였다. 심야의 새벽에도 영화를 상영하는 24시간 체제로 운영된다.

/정병호기자

캣우먼

전현희 칼럼니스트

3년 사귄 남친 결혼 결정 못하겠는데… 평정심 갖고 상대 존중 자세 중요

Q Hey 캣우먼!

3년 된 남자친구가 있지만 요새는 이 관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점점 그의 인생에서 제가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연락도 줄어든 데다가 제가 겨우 주말에 시간 내서 계획을 잡으면 지쳐서 쉬자고만 합니다. 주변의 여자동료들과 야근이라도 하면 신경이 쓰이기도 하지만, 막상 그가 결혼하자고 하면 제 마음이 아직 결정을 못할 것 같습니다. 참 모순된 감정 같긴 해요. 우리는 과연 사랑하는 걸까요.

/아이디 ○○○

A Hey 마지막 괜찮은!

3년쯤 만나면서 처음 연애할 당시의 관심과 신경을 바란다면 그걸 충족시켜줄 남자는 찾기 어려울 겁니다. 처음에 여자친구로 만들기 위해 잘해줬던 그 모든 행동들이 비정상이었고 지금이 자리를 잡은, 즉 안정된 관계를 갖고 있는 원래의 평범한 남자로 안착한 겁니다.

연애 중 삶의 우선순위를 남자에 주는 여자와 달리 남자는 아무리 상대가 보고 싶어도 자기 할 일 다 하고 나서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 원래부터 꼼꼼하거나 의처증 증세가 있지 않은 한 여자가 원하는 만큼의 연락을 주는 남자는 찾기 힘들 겁니다. 여자는 친밀감을 키워가기 위해 자주 연락하기를 바라지만 남자는 간섭이나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주변의 여자들에 대한 질투는 남자친구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는 나의 장난감이 아니고 존중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나의 자존심이나 기분을 위해 상대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고, 상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노력을 존중해야지요.

여자들은 모호한 상황을 못 견뎌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제각각 정의가 다릅니다. 가령 제게 사랑이란 보고 싶어 하고, 만지고 싶어 하고, 안고 싶어 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거꾸로 여쭙니다. 당신에게 사랑은 뭔가요? 그 정의대로 당신은 그를 사랑하고 있긴 한가요?

/캣우먼

날씨

10/1 水 일출 06 27 일몰 18 1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532.co.kr

지역	기온
서울	14/24
청주	14/25
대전	13/24
전주	16/26
광주	16/25
제주	18/23
강릉	12/21
울릉도	17/19
대구	15/24
포항	15/23
울산	15/23
부산	17/24

2주 이상 코가 막히고 두통이 지속되면 급성 축농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하고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면 축농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기가능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www.cmcseoul.or.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7			6
9					6			
	5		3	4		1		
		1		7	2	4		
	6	9				2	5	
		5	4	6		3		
		4		2	5		7	
			7					5
5			6				3	

		4	1		6			
	6			4	2		1	8
1	5							
		3		1			8	
			5		8			
	9			6		4		
							7	2
2	7		4	3			9	
			7		5	8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면사 스도쿠 프리미어」(지미 고든 스펫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결혼 얘기 오가는데 성사 가능할까 믿음·사랑으로 다가가면 좋은 결실

Q 계묘생이(님) 여자 88년 4월 15일 양력 오전 9시 25분, 남자 84년 9월 1일 양력

지난 번 선생님의 풀이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다시 선생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저를 위해주고 자상하며 성실한 남자친구입니다. 지도수지제작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서 과연 저와 결혼 운이 있는 사람인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지 걱정이 됩니다. 결혼은 몇 세쯤 하면 좋을지, 상견례는 아니지만 서로 집에 인사는 드린 상태고요. 어릴 적 부모님의 일로 상처를 받았는데 결혼하는 사람과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A 부부가 되는 것은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게 되는 것이겠지요.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큰 상대를 선호할 것이며 명리 이에서도 사주가 서로 필요한 오행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더운 계절에 태어나 매우 조열(燥熱)한 사주라면 심미는 추운계절에 태어난 사람이 부부로서 맞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너무 지나치거나 부족할 때 그것을 중화시켜주는 오행(五行)의 상대를 만나야 하겠으며 성격도 너무 우유부단해서 운계라면 상대는 강직한 사람을 만나야 천리적이라고 합니다.

귀하는 심지가 강직하여 별로 독립하는 인품에 고지식한 면이 있는 가운데 고집이 있고 착하는 기질을 보일 때가 있으니 뒤는 무른 특성이 있습니다. 상대 남자는 높은 산과 같은데 산의가 있고 산길이 우뚝무며 근면하고 타인의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기도 합니다. 호심이 깊어 조만에는 본인 가정보다는 사회에 책임의식이 강하고 행동이나 마음의 씀씀이가 풍부한 사람으로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가슴에 두고 살면 순리한 결혼이 될 수 있습니다.

천을귀인(귀인의 도움이 있는 길)을 상호 갖고 있어 상부상조가 되며 운에서 여자는 관성(官星·남자)의 기를 살려 주는 편이고 남자는 재성(財星·여자)을 생해줍니다. 한이 되는 2014년은 무난했으나 2015년이 지나면서 생일주(生日柱)이 형살이 엄하게 되고 파살(破殺)이 겹쳐 마음이 흔들리는 애로가 생깁니다. 충살(衝殺)과 파살 이란 아무리 좋은 궁합이라도 굴곡이 있으며 애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가면 백년해로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1일 (음 9월 8일) 김학수 인생상담 ☎ 7-4-4

쥐 48년생 털 나기면 질투가 뒤따른다. 60년생 나쁜 관계은 정리해서 재미. 72년생 비밀이 불면 꽃은 흔들리기 마련이다. 84년생 한 눈 팔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라.

소 49년생 몸이 필요 없다 보여주라. 61년생 곰이 있어서 활력이 남치는 격이다. 73년생 식당업 종사자는 대박 기대하라. 85년생 어렵지만 희망도 발견한다.

호랑이 50년생 공들인 일은 결실 맺는다. 62년생 경쟁자는 경계하되 의연하게 대하라. 74년생 다수의 뜻을 따라야 손해가 없다. 86년생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선 그어라.

토끼 51년생 편견을 버리고 정해 가라. 63년생 엉뚱한 만남이 의외의 박수가 쏟아진다. 75년생 공명심에 후회할 일은 만들지 말라. 87년생 가슴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용 52년생 웃다 말으면 끌려 다닌다. 64년생 기적이 화목해 만사 편안~ 76년생 기다렸던 소식은 듣게 된다. 88년생 가슴 후비는 독설의 언변아는 삼가라.

뱀 53년생 과음으로 한한 말 조심~ 65년생 음주 후 운전하면 두고두고 후회한다. 77년생 강하보단 약함으로 여물하라. 89년생 일보전진위해선 일보후퇴가 필요하다.

말 42년생 생각도 못한 공돈이 생긴다. 54년생 화해 제스처는 받아들여라. 66년생 공들인 일은 풍성한 결실 맺는다. 78년생 직장인은 솔쏘시게 역할에 최선 다하라.

양 43년생 할 일은 적극적으로 하라. 55년생 유명무실한 감투는 벗는 게 좋다. 67년생 상대방의 좋은 점은 따라할 것. 79년생 일이 꼬이면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

원숭이 44년생 귀가 얇으면 권리도 겁어진다. 56년생 힘보단 말로 승부하라. 68년생 아랫사람이 틸러 다니는 게 편안하다. 80년생 동반자 마음 끈 끌려면 관심부터 가져라.

닭 45년생 몸도 마음도 편안하구나. 57년생 잃은 길을 다시 찾은 격이다. 69년생 존재감 보이주려면 새로운 모델을 적극 찾아라. 81년생 음과 양이 바뀌는 날이다.

개 46년생 자녀 덕에 후한 대접받는다. 58년생 부리대로 거둔 것이니 처지 비관 말라. 70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82년생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

돼지 47년생 주변 분위기 갖춰 행동하라. 59년생 어정쩡한 자리가 부담스럽다. 71년생 기회가 왔으니 첫 단추 잘 꿰어라. 83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무언히 듣는다.

아시아 정상에 선 14세 소년

30일 오전 인천 왕산요트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요트 옵티미스트에 출전한 한국 박성빈이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요트 박성빈 韓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한국 선수단 중 두 번째로 어린 박성빈(14·대천서중)이 아시아 정상에 우뚝 섰다.

박성빈은 30일 인천 왕산요트경기장에서 열린 요트 남자 옵티미스트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지난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채봉진이 금메달을 따낸 이후 16년 만이다.

앞서 열린 10차례의 레이스에서 벌점 13점을 받은 박성빈은 2위 모하메드 다이웃딘 로자이니(말레이시아·벌점 24)에 11점 차로 앞서 있었다. 11차 레이스에서 로자이니가 4위에 그침에 따라 우승을 사실상 확정했다.

첫 레이스에서 2위를 기록한 박성빈은 2~3차 레이스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선두로 치고 나섰다. 이어 8~11차 레이스를 모두 1위로 마치며 굳히기에 성공했다.

2000년 10월10일생인 박성빈은 요트 여자 옵티미스트급의 김다정(13·대천서중)에 이은 한국 선수단의 두 번째 최연소 선수다. 김다정이 메달권에서 밀려남에 따라 박성빈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가장 어린 금메달 수상자로 남게 됐다.

박성빈은 충남 보령 청파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 권유로 처음 바다로 나섰다. 이듬해 국가대표로 발탁된 박성빈은 그 해 첫 국제대회인 싱가포르 아시아선수권 옵티미스트급에서 200여명 중 18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2012년 일본 아시아선수권에서 14위에 오르며 일취월장한 모습을 보인 박성빈은 지난해 전국소년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해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전국소년체전에서 1위를 휘쓸며 국내 최강자로 자리매김했다. /김학철기자 kimc0304@

축구 남북대결 성사됐다

한국, 28년 만에 결승 진출… 북한과 2일 결승전

한국과 북한이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에서 맞붙게 됐다.

30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남자 준결승 경기에서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태국을 상대로 2-0 승리를 거뒀다.

이날 경기에서의 승리로 한국은 태국과의 아시안게임 역대 전적에서 7승2패를 기록하게 됐다. 한국은 1986년 서울 대회 우승 이후 꿈었던 지긋했던 4강 징크스를 시원하게 털어내고 28년 만에 결승에 진출했다. 조별리그 세 경기와 토너먼트 세 경기 모두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탄 만큼 금메달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 경기 내내 일방적으로 태국을 몰아붙였다. 그러나 골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전반 19분 손준호(포항 스틸러스)의 땅볼 중거리 슛이 수비수를 맞고 굴절되며 좋은 득점 기회로 이어지는 듯 했으나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전반 29분 김진수(호펜하임), 전반 36분 장현수(광저우 부리)의 슛도 아쉽게 골대를 빗나갔다.

기다리던 첫 골은 전반 41분에 터졌다. 임창우(대전 시티즌)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이종호(전남 드래곤즈)가 머리로 받아 넣어 결승골을 뽑아냈다. 이어 전반 45분 이재성(전북 현대)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장현수가 득점으로 연결해 2-0을 만들면서 승리를 예감했다.

후반전에서는 태국이 매서운 반격을 펼쳤다. 특히 후반 35분경에는 태국이 위협적인 슈팅을 세 차례나 시도했으나 골키퍼 김승규(울산 현대)가 잘 막아내며 실점 위기를 넘겼다.

이에 앞서 인천 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북한과 이라크의 4강전은 연장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북한의 1-0 승리로 끝났다. 연장 전반 5분 정일관이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얻은 프리킥을 왼발로 차넣으며 승리를 이끌었다.

북한의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 진출은 1990년 베이징 대회 이후 24년 만이다. 당시 북한은 이란과 승부차기 접전 끝에 패해 준우승했다.

또한 한국과 북한은 지금까지 아시안게임에서 세 차례 만나 1승1무1패를 기록했다. 금메달을 놓고 최종 승자를 가릴 결승전은 오는 2일 오후 8시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30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국과 태국의 준결승전에서 한국의 장현수가 팀의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킨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나영 한국 첫 3관왕

볼링 출전 전 종목 메달 획득

한국 볼링의 이나영(28·대전광역시청·사진)이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 처음으로 3관왕에 올랐다.

이나영은 30일 경기도 안양 호계체육관 볼링장에서 열린 대회 개인전과 2·3·5인조 경기에서 총 5132점을 기록해 말레이시아의 신리제인(5095점)을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볼링 개인종합은 개인전과 2·3·5인조 경기에서 기록한 개인 성적 합산으로 순위를 가리게 된다.

이나영은 이번 대회 2·3인조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데 이어 개인종합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3번째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개인전 동메달과 5인조 은메달을 포함해 자신이 출전 종목 모두 메달권에 진입했다.

개인전에서 1272점을 얻어 동메달을 수확한 이나영은 손연희(30·용인시청)와 함께 출전한 여자 2인조에서 1243점을 따내 우승을 합작했다. 이어 3인조에서는 1361점을 기록해 손연희·정다운(28·창원시청)과 또 하나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5인조에서는 1256점을 보태 개인종합 정상에 올랐다.

5인조 경기는 총 6게임을 이틀에 걸쳐 겨룬다. 한국 여자 대표팀은 29일 이나영·손연희·정다운·김진선·전은희가 나서 3게임까지 3049점으로 싱가포르(3144점)에 이어 2위를 달렸다. 이어진 4게임에서는 전은희 대신 투입된 막내 이영승의 활약으로 1위 싱가포르와의 점수 차를 좁혔으며 5게임에서 이나영을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난조를 보여 점수가 벌어졌다. 마지막 6게임에서 역전을 노렸으나 71점 차이로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김학철기자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 순위

순위	국가	금	은	동
1	중국	125	73	61
2	한국	54	56	60
3	일본	37	54	55
4	카자흐스탄	16	16	25
5	이란	14	11	10

<30일 현재>

정지현 10년 만에 金

한국 레슬링 8년 만에 금맥 이어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정지현(31·울산남구청)이 한국 레슬링에게 오랜만에 금메달을 선사했다.

30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그레코로만형 71kg급 결승전에서 정지현은 우즈베키스탄의 딜쇼드존 투르디에프를 테크니컬 폴로 꺾고 승리했다.

4강전에서 과거 난적으로 꼽혔던 이란의 사이이드 아브드발리와 난전 끝에 승리를 거둔 정지현은 결승에서 만난 딜쇼드존 투르디에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1분30초만에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정지현의 활약으로 한국 레슬링은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이후 8년 만에 금맥을 이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은 포함해도 어이저 국제 대회에서 10년 만에 따낸 금메달이다.

경기가 끝난 뒤 정지현은 "오랜만의 금메달이라 감회가 새롭다"며 "아테네 올림픽 이후 국제대회 금메달이 거의 없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었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함께 출전한 그레코로만형 59kg급의 김영준(29·수원시청)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중국 펀지에게 0-4로 져 공동 5위를 차지하며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그레코로만형 98kg급에 출전한 구학본(22·광주 남구청)은 첫 경기에서 카자흐스탄의 에굴린 이스카코프에 2-0으로 패했다. /장병호기자

30일 오후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 레슬링 남자 71kg급 결승전에서 한국 정지현이 우즈베키스탄 딜쇼존 투르디에프를 공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연재의 '금빛 리듬' 시작된다

1일 개인 예선·팀결승, 2일 개인 종합 결승 출전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0 연세대)가 1일 인천에서 금빛 리듬을 탄다.

손연재는 지난 28일 터키 이즈미르에서 열린 리듬체조 세계선수권대회를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세계선수권에서 후프 종목 동메달을 따낸 것에 이어 개인종합 4위에 오르는 등 가벼운 중간 모의고사를 치르고 온 셈이다. 귀국 당시 손연재는 "인천에 오니까 아시안게임이 실감이 난다. 부담감을 이겨내고 경기에만 집중하겠다"며 "세계선수권대회 때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전했다.

이번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손연재는 단체전과 개인전에 연이어 출전한다. 그랑프리 월드컵·세계선수권 등 연이은 국제대회 출전으로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법도 하다. 그러나 그는 "일정 자체에는 큰 무리가 있지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가 똑같은 조건이다. 누가 더 빨리 컨디션을 찾고 적응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우승 후보다운 말을 남겼다.

손연재의 아시안게임 금메달 경쟁자는 중국의 덩썬웨(22)다. 덩썬웨는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종합에서 5위에 올라 4위 손연재보다 한단계 아래에 랭크됐다. 그러나 둘의 점수차가 1.167점에 불과해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손연재는 "절대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라며 "최대한 집중하고 마음을 가라앉혀서 차분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아무래도 부담이 많은 게 사실이다. 리듬체조는 집중력을 요구하는 경기인데 관중들의 호응이 경기 중간이나 시작에 있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덧붙이며 경기 관람에 나선 팬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손연재가 지난 29일 오후 인천시 남동체육관에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리듬체조 경기를 앞두고 리본 동작을 연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안게임에서는 후프·볼·곤봉·리본 등 4가지 종목 점수를 합산해 개인종합 순위로 메달을 결정한다. 국제대회에 있는 종목별 결선이 없는 것이다. 그만큼 각 종목에서 기복없는 연기를 펼쳐 고득점을 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손연재의 그간 대회 기록을 보면 종목 중 리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터키 세계선수권과 러시아 카잔월드컵, 이탈리아 페사로월드컵 등에서 손연재는 후프·곤봉·볼 등의 종목에서 18점대를 기록하며 메달을 딴 바 있다. 반면 리본에서는 실수를 범한 경우가 잦았다. 이 종목에서 실수를 줄이는 것이 금메달을 향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다.

아시안게임 메달권으로 보고 있는 종합 70점대 진입을 위해서는 종목별로 평균 17.5점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 직전 대회인 세계선수권에서는 70.933점을 기록하고도 4위에 올랐다. 상대적으로 강한 선수들이 대거 참가한 대회였다.

손연재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팀전과 개인 종합 결승을 연달아 치른다. 이미 아시안게임 리듬체조 경기 입장권은 매진된 상태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리듬체조 최초로 개인종합 동메달을 목에 건 손연재다. 자신과의 싸움을 강조해온 손연재가 마침내 '금빛'을 쏠 수 있을지 세계의 눈이 그를 향하고 있다.

/[illegible]

구기 종목 '빅매치 데이'

남녀 농구 한일전, 핸드볼·하키 등 볼거리 풍성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한국 남녀 대표팀은 1일 농구·핸드볼·하키 등 구기종목에서 결전이 예고돼 있다. 구기 종목에 대한 인기가 높고 대회 후반부에 결승전이 몰려 있는 만큼 관심이 높다.

농구는 이날 남녀 대표팀 모두 일본과 준결승을 치른다. 일본을 상대하는 한국은 남녀 농구 모두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고 있어 결승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남자 대표팀은 일본을 잡고 결승에 오르면 이란과 카자흐스탄의 승자와 3일 결승전을 벌인다. 여자 대표팀은 중국-대만의 승자와 2일 금메달을 놓고 맞붙게 된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남녀 농구는 모두 중국에 져 은메달을 따냈다. 중국 남자 농구가 이번 대회 8강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연출되며 남자 대표팀은 이란과 결승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자 대표팀은 결승에 오를 경우 4년을 기다린 리턴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중국 여자 농구가 대만에 크게 앞서기 때문이다. 안방에서 싸우는 만큼 홈 이점을 살린다면 남녀 농구 첫 동반 금메달 달성도 기대해 볼만하다.

같은 날 오후에는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결승에서 한일전을 치른다. 한국은 광저우 아시안게임 4강에서 1골 차로 일본에 분패한 적이 있다. 여자 핸드볼 팀은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다.

여자 하키 결승전도 같은 날 치러진다. 지난 광저우에서 금메달을 놓고 붙었던 중국과 다시 만나게 된 대표팀은 한을 풀겠다며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

한편 4강에서 북한에 아쉽게 패한 여자 축구는 이날 베트남과 동메달 결정전을 벌인다. 남자 배구 대표팀은 우승후보 이란에 이어 E조 2위를 차지해 F조 3위인 태국과 8강에서 격돌한다. 한국 대표팀이 야구 금메달에 이어 4대 프로 스포츠 전 종목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대회 막바지까지 관심은 끌고 있다.

/김학철기자

2014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일정

10월 1일(수)

- **육상** 송도 센트럴파크/아시아드 주경기장
  50km 경보(7시) 10종 경기 등(9시)
- **농구** 화성종합경기타운/삼산월드체육관
  여자 4강전 한국-일본(17시30분)
  남자 4강전 한국-일본(19시45분)
- **볼링** 안양호계체육관
  남녀 마스터즈(9시)
- **복싱** 선학체육관
  여자 -51kg 등 결승전(15시)
- **카누** 하남 미사리카누 경기장
  여자 C1 등(9시)
- **사이클** 강화 아시아드 BMX 트랙
  남녀 BMX 레이싱(11시30분)
- **축구** 인천축구전용경기장/문학경기장
  여자 3-4위전 한국-베트남(17시)
  결승전 북한-일본(20시)
- **체조** 남동체육관
  리듬체조(18시)
- **핸드볼** 선학핸드볼 경기장
  여자 결승전 한국-일본(18시)
- **하키** 선학하키 경기장
  여자 결승전 한국-중국(19시)
- **카바디** 송도글로벌대학 체육관
  남자 한국-말레이시아(16시)
- **럭비** 남동아시아드 럭비 경기장
  남녀 7인제(12시55분)
- **요트** 왕산요트경기장
  레이저급 등(12시)
- **세팍타크로** 부천체육관
  남녀 레구(11시)
- **수영** 문학박태환 수영장/드림파크 수영장
  다이빙 1m 스프링 결승(14시) 남자 수구(14시)
- **탁구** 수원실내체육관
  혼합복식 등(14시)
- **태권도** 강화 고인돌체육관
  남자 -80kg 등(9시30분)
- **배구** 송림체육관, 안산 상록수 체육관
  남자 순위결정전(12시)
- **레슬링** 도원체육관
  그레코로만형 66kg 등(13시)
- **정구** 열우물 정구장
  혼합복식(9시)
- **소프트볼** 송도LNG야구장
  준결승(10시)

연합뉴스